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하면서 하나님 의 교회를 찾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몸 된 역할을 잘 감당 하게 하셔서 참 신앙인들의 수가 날로 늘 어남으로 복음전파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7월 9일 (토) 제 159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크리스천 절반 이상이 교회가지 않는다!

라이프웨이, 교회 안가는 미성인 2,000명 설문 조사 결과

퓨 리서치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답한 사람은 20%로 5년 전의 1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간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지만 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이프웨이'는 교회에 가지 않는 미 성인 2,000명과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search: Unchurched Will Talk About Faith, Not Interested in Going to Church).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싫어하지만, 지역사회 주관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행사나 콘서트에는 간다. 그리고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자고 초대하면, 30% 정도는 교회에 간다. 그리고 죽은 후에, 찾아오는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가 자신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라이프웨이 사무국장 스킷 맥코넬은 설명한다.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천들과 별반 다르

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35%만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얻는 영적 유익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맥코넬에 따르면, 미국인 중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에

기만 하면, 다시 이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권고한다. △62%는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교회 모임에는 참석 △51%는 커뮤니티 주관 행사



퓨 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Unchurched)"는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를 풀어보면:

- △2/3(67%)는 백인
- △과반수 약간 상회하는(53%) 성별은 남성
- △47%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나 중퇴자
- △62%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갔고
- △32%는 자신들을 무종교인으로 간주하며
- △1/5은 기독교, ¼는 카톨릭교인
- 47% 정도는 종교 문제를 논의할 때, 자유롭게 말하며, 31%는 그냥 듣기만 하고, 11%는 종교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을 발견되지 않았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듣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동 리서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들을 파악하

△45%는 콘서트
△46%는 운동이나 경기 행사
휘튼 대학 전도학과 리더십 담당 리처드슨 교수는 "커뮤니티 안전에 대한 관심은 또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잠재적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교회에 이러한 커뮤니티 안전이나 보호 차원의 행사들을 마련하여 초대할 것"을 당부한다.

<2면으로계속>

"무늬만 신앙인" 자축파티로 끝나선 안돼

'2016 대선...NPR, 트럼프 대통령 후보로서의 신앙 문제

'2016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존 경선과는 다른 특성들을 보여준다. 민주당에서는 과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경선에서 탈락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첫 유대계 대통령이자, 철저한 휴머니스트 즉 신앙을 갖지 않은 대통령이 될 지 초유의 관심사였다.

공화당 역시 정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던 후보들의 약진이 있었다. 그 누구도 공화당 제1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을 후원하는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를 등에 업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민주당, 공화 양당 후보의 종교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진다. 그만큼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통합시킬 대통령의 리

더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힐러리는 감리교인이며, 성경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 현장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신앙과 정치를 구분한다. 반면에,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로서 신앙을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이용하고만 있지, 정작 신앙과는 전혀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 전문지 'NPR'은 트럼프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미국 대통령의 신앙이 이번 선거에서 무시(?)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As Trump Defies Expectations Of Faith, Might We Be Entering A New Era?). 또한 트럼프 진영의 본진 세력인 '침묵하는 다수'의 실체를 같이 조명해준다(Trump Champions The 'Silent Majority,' But What Does That Mean In 2016?).

많은 통계나 연구들을 통해 미국은 점점 더 "포스트-크리스천 국가"가 돼가고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인들이 크리스천 전통에 속하지 않은 대선 후보를 만난 것은 미트 롬니였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은 물론교인인 롬니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2016 대선을 맞아, 가장 강력한 비크리스천 대권 예비 후보는 바로 트럼프이다. NPR은 트럼프의 종교적 견해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배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종교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새로 대통령으로 탄생될 후보의 신앙관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신앙이야말로 개인적,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은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작용해왔다.



'침묵하는 다수'를 등에 업은 도널드 트럼프가 리버티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국가의 비전을 형성해가게 되고, 또 그 국가를 이끌어 가며 정치적 입장 또한 종교적 신념에서 뒤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신앙으로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태프트 대통령 등도 선거기간 동안에 신앙이 없다는 것으로

공격 받기도 했었다. 이처럼 미국 역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의 종교관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일부 경건한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대통령들, 특히 초기 건국 국부(國父) 가운데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3면으로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생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ission@wmu.edu, 213) 368-1005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일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책임자: 최사 ryong@joenpress.com

2면
가난과의 전쟁, 유치원 단계서 해결해야!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

16면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김진근 장로

제1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북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침낭, 갈아입을 옷, 수영복, 선불라, 개인물품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myouth@gmail.com

김진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대표)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노형권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이용기장머 선교단

가난과의 전쟁, 유치원 단계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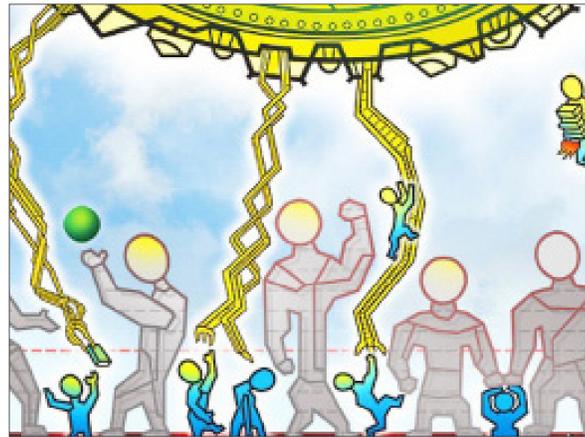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 미취학기 교육 중요성 보도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가난과의 전쟁” 정책의 일환으로 3, 4세 아동을 위한 여름학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를 야심차게 도입했다. 오늘날 매년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또래 미국 어린이들 가운데 정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치다. 반세기 전에 미취학기 교육을 강조했던 원인은 바로 가난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A running start: Poor children fall behind early in life. Better pre-school education could help).

미취학기 교육의 중요성은 연구 결과로도 잘 드러난다. 아동들의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이미 가정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져 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정의 어린이들은 대상으로 한 2011년 스탠포드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학과 읽기 능력은 6세에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이 격차는 18세까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UCLA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부유층의 사교육에서 찾았다. 6세까지 부유층 자녀들은 빈곤층 또래들에 비해 1300시간 이상의 과외 활동을 한다. 가난한 부모들은 미취학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돈도, 시간도 없다.

이런 연구 결과는 유치원 단계의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유치원 공교육 강화는 계층 간 이동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교육 격차,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의 효과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린든 존슨 정부의 “헤

면서 유치원 공교육 강화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유치원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수

낮았다.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이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높일 뿐 아니라, 성실성과 같이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평생 유용하게 쓰이는 자질들을 몸에 익히게 해준다고 말한다.

물론 국가가 모두에게 유치원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다. 캐나다 퀘벡 주 정부는 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사설 기관이나 가정에서 고급 사교육을 받던 어린이들이 공립 시설로 옮겨진 경우 오히려 사회적 발달에 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럼에도 유치원 공교육 확대론자들은 유치원 교육은 장기 투자이며, 빈곤층과 부유층이 격리되다시피 하는 초, 중등 교육 과정에 이르기 전이라도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한데 어울

수학과 읽기 능력 6세에 이미 상당한 격차, 18세까지 거의 불변 교육 격차, 빈곤 문제 해결위해 복지 예산 투입보다 훨씬 경제적

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더니 고교 졸업률이나 취업률, 소득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더 건강하고, 담배를 피울 확률이나 감옥에 갈 확률도

려 생활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의 효과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린든 존슨 정부의 “헤

크리스천 절반 이상이 교회가지 않는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초대해 준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 35%는 예배에, 25%는 갱신이나 회복 프로그램에 그리고 24%는 영적인 주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 초청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섬세한 관심과 보살핌이 동반되어야 한다. 51%는 교회 방문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초대가 있으면 가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1%는 가정 방문, 23%는 TV선전이나 우편엽서 그리고 18%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배너 광고를 보고 교회에 가보겠다고 응답

했다. 결론으로, 이러한 설문 결과들은 교회 리더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 맥코넬은 “만약 우리가 교회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인상을 갖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겠지. 교회의 출석률 문제는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교회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이 세상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요한 매체는 바로 교회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없이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의 효과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린든 존슨 정부의 “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시론

“인간이기에 악하다!”

독일의 친위대 중령이자 히틀러의 열광적 지지자였고, 그래서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칼 루돌프 아이히만. 그가 아르헨티나에 도주했다가 1960년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의 집요한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1962년 5월에 처형될 때까지 지루한 재판과정에 함께 참관한, 그 역시 혹독한 홀로코스트에서 하마터면 희생제물이 될 뻔했던 독일 출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였다. 아렌트가 본 인간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평범한 사람도 이런 무서운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어떤 인간을 악마로 이끄는 것은 절대 악이 아니라 우리 안의 양심의 선택을 저버렸을 때이며, 악은 평범한 데 있는 것이며 도덕과 양심을 외면하는 순간 악이 잉태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아렌트는 2차 대전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 악은 극악무도한 그 어떤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인간의 선에 대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왔다고 함으로 인간성 안에는 악마성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런 악의 평범성은 약 10년 후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에 의해 입증되었다. 신문에 난 모집공고를 보고 자원한 24명의 사람들을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나누어 역할을 맡긴 첫날부터 평범했던 그들은 진짜 교도관과 진짜 죄수로 돌변하였다. 가짜 교도관들은 갈수록 난폭해져서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게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까지 감행하여 6일 만에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33년 뒤인 2004년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에서 미군이 이와 거의 유사한 포로학대를 자행하는 사진들이 전 세계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일으켰다. 미군들은 포로들의 옷을 벗겼고 봉지를 씌웠고 납치 말아야 할 선들을 넘었던 것이다. 상황이 인간의 악마성을 드러내게 만든 사건들이었다.

지난 달 킬링필드로 악명 높은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수도 프놈펜 거리조차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오염되고 낙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대부분이 친절하고 얼굴에는 선의가 가득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선량했고 어린이들의 커다란 눈망울은 인상적일 정도로 착하였다. 도로사정이 나쁜 것은 물론이고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뒤엉켜 가히 교통지옥이라 할만하였으나,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킬링필드를 일으켰단 말인가?’

1975년부터 79년까지 당시 7백만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크메르 루즈 정권은 학살하였다.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분자들이었다. 약간이라도 배웠거나 안경을 썼거나 손에 굵은살이 박이지 않은 이들 그 가족들은 다 죽었다. 총알이 아까워 대부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산 채로 파묻어버렸다. 한 사원에서는 10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수호사자상의 엉덩이에 칼을 갈아 죽였기에 엉덩이가 문턱 잘려나갈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인명이 희생당했다. 어린 아이들은 다리를 잡고 나무에 머리를 매어쳐 소위 ‘킬링트리’라 이름을 붙였다.

킬링필드 박물관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해골과 뼈들로 인해 경악해야 했지만 막상 놀란 것은 2009년 전범재판에 놓여 35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카잉 구에 에아브라는 악명 높은 감옥소장의 사진을 보고서였다. 그는 끝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왔기에 중형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그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뜻밖에 그의 눈빛은 너무나 선해 보였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되는 중얼거림. “인간이기에 악하다.”

내가 방문한 기간이 마침 6.25동안 67주년이 되는 주간이었다. 군인사망자 140만 명, 민간인 사망자 250만 명. 동족상잔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수다. 캄보디아인들이 극악해서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악해서 죄 가운데 살며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danielkmin@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한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무늬만 신앙인” 자축파티로 끝나선 안돼

(1면에서계속)

반면에 세속적인 미국인들은 건국 국부들의 개인적 삶이나 정치적 삶에 있어서 종교가 미쳤던 영향력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 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중, 성경에 손을 대고 “하나님 도와 주소서”라고 취임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링컨이다.

1865년 3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지켜본 신문기자는 지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오른손을 성경책 위에 올린 채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노라 서약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이라는 말로 선서를 마친 대통령은 몸을 숙여 성경책에 입을 맞추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미국 헌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가져야한다는 법도 없지만 이 문구는 취임 선서를 마무리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라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며, 목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미국에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의미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다트머스대학의 역사학자 랜들 발머(Randall Balmer)는 왜 미국인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결혼한 세 번 한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대통령의 종교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트럼프는 자기 인생에 용서란 필요 없으며, 예수는 “용감하다는 점에서”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독실한 감리교회 신자였던 부모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진보적인 교회들과의 유대 관계도 강조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비종교성”은 공화당 당원들에게 꽤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뉴욕에서 보수파 교회 관계자를 만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조차도 기독교인 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공개교 이루어진 이 회동에서도 트럼프는 신앙심과는 거리가 있는 어색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엄청난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



았고, “교회에 빚진 게 많다”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가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모두가 한 특정 인물에게 투표할 수 있게 기도

인디애놀라에 사는 페티 휴스의 말이다.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일한 만큼 받아가려는 사람들이죠. 공짜를 원하지 않지만, 빼앗기는 것도 싫어합니다. 없이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일을

다고 설명한다. “닉슨의 머리속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미국 국민이 있었다. 한 부류는 하얀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에 살면서 규칙을 따르고 세금을 잘 내며 시위 같은 건 하지 않는 보통의 평범한 중산층 시민이고, 다른 한 부류는 말하자면 왼쪽 사람들이었죠.”

이후, “시끄러운 소수”는 반전 운동가들 외에도 여러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간다. 과격한 흑인 민권 운동가들에서부터 브라를 불태우는 페미니스트, 마약을 하는 학생, 락앤롤 밴드 등 기존 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집단을 포함하자, “소수”의 규모는 상당히 커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3분의 1 이상이 65세이므로, 상당수는 닉슨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펠스타인은 “침묵하는 다수” 담론에 인종주의적인 면도 숨어있다고 설명한다. “다수가 있다면 소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 소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죠.”

물론 2016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대가 1960년대와는 달라졌고, “침묵하는 다수”라는 말에 인종차별 주의적인 뜻은 없다고 항변한다. “

트럼프의 회사를 보세요. 다양한 인종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도민에 살고 있는 지지자 조지 데이비의 말이다. 데이비는 오늘날의 “침묵하는 다수”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요하는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도 그가 정치적 올바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죠.” 데이비는 처음에 특정 집단에 대한 괴롭힘 금지(anti-bullying)에서 출발한 개념이 지금은 너무 과도해져서 이전 말 한 마디 잘못하는 것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됐고,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데이비가 말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닉슨의 “침묵하는 다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게 펠스타인의 설명이다. “침묵하는 다수란 박탈감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공기 중에 녹아나오는 것이죠.”

결국 ‘침묵하는 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트럼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예비 경선에서 고공 행진을 보인 트럼프 인기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잃고 산다고 사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거침없는 입담과 돌발 행동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구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 ‘침묵하는 다수’ 박탈감 해결위해 트럼프 맹목적 추종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종교인들의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침례교 목사이자 페트리켄리 칼리지의 총장인 마이클 페리스(Michael Farris)는 트럼프가 사업상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성경이 설교하는 정직함, 품위, 고결함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한다. 그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를 전혀 중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꼴”이라며 뉴욕 회동을 “기독교 우파의 종말”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랜들 발머 교수는 ‘2016 대선’이 “이제 미국인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실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트럼프 본인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

“자기 할 일하고, 남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조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조르지 않아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죠.” 아이오와 주

당하고 있어요.” 재정 보수주의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단체에 대한 반감, 국정 교착상태에 대한 환멸 등을 ‘침묵하는 다수’의 특

성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덕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라는 개념의 역사는 꽤 길다.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 시대의 보수주의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릭 펠스타인(Rick Perlstein)은 반전 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기인 1969년 11월, 베트남 전쟁을 옹호했던 닉슨의 연설을 주목한다.

“1969년 10월 15일, 미국에서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남녀노소의 시민 2백만 명이 학업과 생업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와 반전 시위에 참여했죠. 닉슨 대통령 집권 초기의 허니문 시기가 끝나고, 반전 운동이라는 것이 주류 정치로 편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든 이 움직임에 ‘미국적이지 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당시 닉슨은 연설에서 “특정 시각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시각을 나라 전체에 강요하려는 소수에 의해 국가의 정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했던 선서를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전에 하는 미국 국민, 침묵하는 다수인 바로 당신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했다.

펠스타인은 “침묵하는 다수”가 닉슨의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

소망 칼럼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산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니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예수를 보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 아들이 병어리 귀신 들렸는데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하소연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여 아이를 주 앞으로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며 달아났다(막 9:14-29).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밴더빌트(Vanderbilt)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흑인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감상하였다. 그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찬94장)였다. 이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이며, “약한 자의 강함”이며, “추한 자의 정함”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며,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이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라고 읊은 노래였다.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밴더빌트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두어 번 중얼거려다 숨을 거두었다. 그는 당시에 억만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미약한 가난뱅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누구에게 예수가 꼭 필요한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다. 행4: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니라” 하였다. 둘째, 병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는 만병의 대의사이시다. 현대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예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함이라”고 했다. 셋째, 약한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 힘없고 약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넷째, 미천한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정함과 천한 자의 높음이라고 하였다. 미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된다. 다섯째, 멸망 받을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행16:31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 받게 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섯째,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는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우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였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구원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과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우리는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소원 성취한다. 기독교는 가능성의 종교가 아니라 필연성의 종교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왜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기도가 없는 연고니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newhopebr@hotmail.com

Shepherd University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 아니라 **WASC** 및 **ACICS** 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군정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TITLE 4 Book 4A, 4B, 4C, 4D, 4E, 4F, 4G, 4H, 4I, 4J, 4K, 4L, 4M, 4N, 4O, 4P, 4Q, 4R, 4S, 4T, 4U, 4V, 4W, 4X, 4Y, 4Z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동시 통역 강의

※ 유학생의 R1, H1B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정회원으로 인증된 학교의 학위뿐입니다.

과정	학점	전공
신학학사 (BABS)	12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신학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 스포츠 미니스트리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경영학
목회학석사 (M.Div)	9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목회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 선교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경영학
목회학박사 (D.Min)	3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목회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 선교학 <li style="width: 33%;">· 목회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주한 캐롤로스 모르티즈 박사 학장

저서 ● **기독교의 본질**
● **주교의 역할**
● **기독교의 역사**

할스 크래프트 박사

저서 ● **기독교의 본질**
● **기독교의 역사**
● **기독교의 문화**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www.shepherduniversity.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예배의 정신으로

옛날 경기고등학교를 몇 달 다니고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수재학생이 있었다. 학창시절 그는 어느 평범한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납치당해서 15년 감금생활을 하게 된다. 이유도 모른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감금될 때 쇠조각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벽을 파기 시작한다.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15년 가까이 플래그와 벽을 파는데 드디어 자기 몸이 가까스로 빠져나갈 정도 좁아졌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그 탈출의 날 아침이 드디어 밝아왔

다. 그런데 바로 그 탈출을 기도하려는 날 아침에 간수가 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석방이다" 그러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도 몰래 숨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벽을 파온 것이 억울하지만 석방하라니 어찌하겠는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석방되어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자기도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다시 찾아가다.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 감옥의 한 사무실 안에는 모니터가 가득히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는 자기가 감금되어 있던 방부터 모든 방을 비밀 카메라가 다 연결되어서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보고 있었다. 자기가 벽의 구멍을 뚫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5년 다 살았으니 석방이다' 그런 것이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 몰랐으니까 자기는 구멍 뚫다가 간수들이 오면 빨리 그림으로 덮어서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임마누엘 축복이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뿐 아니라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세상에 나가 생활현장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다. 그

신앙이 유혹을 물리치는 경건의 능력이 되고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함의 사람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식.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영적인 인식이 우리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코람데오 그러면 살았다고 한다. "코람"이란 라틴어로 모로 앞에 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있음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가시지! 하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줄 알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해주시는 것이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이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을 중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 예배시간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한 주간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 제사에는 제물을 바치는 것과 분향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지, 만일 자기가 그 향기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다.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제사의 대상 곧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무엇이든 하나님께만 향기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사업을 하던지 직장을 다니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보시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그런 것이다. 이게 기적

이다. 나이가 들어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생활을 하면서 살았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만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나나 나의 나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인생이다'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영광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다. 무엇을 하시던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나야 되는 것이다. 돈 많이 벌었는가? 사업이 잘 되시는가? 좀 괜찮아지는가? 직급이 자꾸만 올라가서 기분도 좋아지는가? 바로 그 때에 고백하라.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일생을 드려서 하나님만 향기를 맡으시도록...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롱장로교회)



날씨가 많이 무덥다. 청량음료라도 한 잔 들이키면 훨씬 시원할 텐데... 나라가 어지럽다.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도 경제도 참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으련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답답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디 없을까?

있다. 물론 있다.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다. 많은 인물들 중 신약의 바울처럼 시원한 인생을 선사한 사람이 또 쉽게 있을까? 그가 당한 환난과 엄청난 답답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말이다.

1.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함께 동역하였다 할 수 있는 바울에게 붙여질 만한 명칭이다.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유라굴로 광풍을 견디며, 세상 사람들

곧 세상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였던 백부장(행27:11)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 275명이, 바울의 예언대로 어려움을 당하므로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여 모든 것 배의 집,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14일간이나 햇빛도 없이 방향도 모른 채 흘러가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완전한 패망과 기아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돌연히 나타나서 가볍게 책망을 하고 나서 위로하며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을 것이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어제 밤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누가 감히 염려 말라 안심하라, 생명이 조금도 지장이 없다, 곧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청량음료 같은 사람

사도행전 28:7-11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삶이라 하여 무엇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타나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원하고 또 완전하게 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시듯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어야만 하겠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필요를 느낄 때에, 내가 간절히 바랄 때에 성경은 벌써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고, 풍성함을 더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의 바울은 다름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길 대로 영결된 국제정세, 장래를 보아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구촌, 바닥을 볼 수 없는 타락,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의 아름다운 관습상 그들이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였다고 할 수 있겠나 치더라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미 바다에서 되어진 일을 어느 정도 들었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과 모든 사람 275명을 대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본래도 대접을 힘써 하였겠으나 더욱 대접에 정성을 기울였으리라.

바로 그때 나뭇짐 한 응품을 붙여 떨어 놓은 바울을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고서 생각을 바꾼다. 이 사람은 물에서 친신만고 끝에 구함 받았으나 무서운 살인죄를 지었으니 정의가 살도록 두질 않고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혹 붓든지 갑자기 앞뒤로 죽을 줄로 알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생각을 바꾸어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다. 사람이 완전한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풍성함... 어디에서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풍성함이요, 능력이요, 시원함이요, 완전한 해결이요,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 받았다.

운전한 앞길 제시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시대에 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자이다.

독사 사건 이후에도 그 섬의 추장 같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 하였다. 당시의 열악한 삶의 환경을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 특히 질병을 앓는 일을 도우며 있어서 말이다.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옴으로 얼마나 풍성함과 시원함을 선사하였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일로 인하여 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나아와 고침 받고 후한 예로 모두를 대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였다. 바다에서 다 버려 아무것도 없는 그들... 특히 오랜 영적 투쟁으로 피폐하여진 바울에게 풍성하고 또 풍성한 선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한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다 빼앗긴 것이 풍부하게 얻게 된 삶... 그가 별 준비가 없었던 로마에서의 감옥생활에서도 풍성하게 쓸 것을 멜리데에서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한 사람 바울로 모두가 풍성해지고 시원하며 만족하였듯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목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지기를 축원한다.

(11면으로계속)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원

복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가정, 사회, 국가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 중 가장 중요한 것

5. 6월에는 어머니날(Mother's Day)과 아버지날(Father's Day)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날에 팔리는 카드, 선물, 그리고 광고에 비해서 아버지날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 중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며, 아버지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며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여러 조사결과들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웨인(Israel Wayne) 목사는 6년 동안 한결같이 청소년 감옥소를 다니면서 십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친아버지처럼 돌고 섬기던 분입니다. 웨인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300여 명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상담하며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바로 "너는 아버지와 관계는 어땠나?"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명의 청소년들 중 웨인

좋은 예로는 어머니의 날에는 거의 모든 청소년 범죄자들이 카드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평상시 어머니들과는 간혹이라도 편지도 주고받지만 아버지의 날에는 2명 외에는 카드도 보내지 않았고, 평일에도 편지를 아버지와 주고받는 학생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있는 이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나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은?

웨인 목사의 상담과 조사결과에 의하면 감옥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자식을 학대하는 아버지, 엄마의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아버지, 집에 있어도 직장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돈만 갖다 주는 아버지, 자녀에게는 무관심한 아버지, 무능하거나 게으른

에 비해 아버지와 정서적인 관계가 없는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5배 높은 것입니다.

2. 아버지 결핍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90%가 노숙자가 되는데, 이 확률은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홀리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32배나 높은 것입니다.

3. Center for Disease and Control(CDC)에 의하면, 아버지 결핍가정에서 자란 85%의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를 보이는데, 평범한 청소년들에 비해 행동장애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4. Justice and Behavior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 결핍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분노의 문제로 80%가 강간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런 분노로 인한 강간범죄는 평범한 청소년들에 비해 14

8. 아버지결핍 가정에서 자란 85%의 청소년들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에 비해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이 20배나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https://thefatherlessgeneration.wordpress.com/statistics/>

아버지가 미국의 장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될 남자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겸손하게 잘 다스리라는 가장 큰 막중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청소년 문제들은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

청소년범죄자 85%가 아버지 부재 가정에서 성장 '아버지다운 아버지' 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목사님의 질문에 '아버지와 관계는 괜찮다'라고 답한 청소년은 오직 2명밖에 없었다고 아픈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웨인 목사는 6년간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나 범죄 이유들을 분석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여러 조사들을 한 결과,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보통 성인범죄 조사들처럼 '특정지역에서 자라서 범죄를 더 일으켰다든지, 또는 특정 인종이기에 또는 종교이유' 등 일관성 있게 어떤 특정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흔적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범죄청소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배경(background)에는 다른 인종들과 다른 종교, 경제적으로도 상류층, 중간층, 빈곤층 등의 청소년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일관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십대 범죄자로 잡혀온 청소년들이 모두 아버지와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단지 아니면 아버지 부재 또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지낸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들만 보고 경험해 왔었기에 자신들의 존재성에 대한 의미나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상담 중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수업이나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라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과목들은 아버지가 도와준" 또는 "함께" 한 과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웨인 목사는 자신의 상담과 조사들을 통해 확실하게 내린 결론은 아버지의 사랑과 올바른 훈계, 인도를 어릴 적에 받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정의 경건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할 때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그 영향들은 클까요?

1. US Dept. of Health와 Census에 의하면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63%나 된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청소년들

배나 높은 것입니다.

5. National Principles Report Association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71%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인데, 평범한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자퇴 확률이 9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6.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 중 68%의 청소년들이 담배, 술, 마약에 훨씬 더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엄마가 혼자서(싱글맘)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30%의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7. U.S. Department of Justice에 의하면, 문제청소년 교육시설에 있는 70%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부재가정에서 자랐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9배나 높다고 합니다.

로 우리 아버지들이라는 것을 많은 조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살아날 때, 이 사회와 국가에서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되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며 한 가정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아내, 자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교회 안에 가정사역이 활발하게 살아날, "Man's Ministry-남성사역"이 "Woman's Ministry-여성사역"만큼, 아니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 아버지들, 남편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배타주의' 즉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역사적 기독교적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포괄주의나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나 힌두교 마호메트 등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구원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포괄주의는 천주교 신학자인 칼 라너나 한스 쾨이 주장한 것으로서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해서 산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여러 개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이 저마다 각각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구원의 길이 있으니 서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배타주의를 고집합니다. 포괄주의나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곤경이 죄보다는 고(苦)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리고

인간 노력 강조한 열반, 5행...유대교는 예수 부인

고난의 뿌리라고 보는 욕(慾)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욕망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구세주도 없고 쉬지 말고 노력하라는 말이 부처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힌두교는 우리의 문제가 마야(maya)에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보통 시공간적 경험이라는 환상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적 힌두교는 카르마(karma) 곧 환생을 통한 응보라는 불변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행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세에서 아니면 내세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유희(samsara)로부터 응서받아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존재가 소멸되어 비인격적인 신적 실체(Brahman)로 흡수되는 것을 포함하는 열반(Nirvana)이라는 최종적인 해방만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야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지 않기에 그분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회교에서는 구원을 위해 오해를 강조합니다. 공적인 신앙고백과 하루 5번 기도, 라마단 금식, 1/40의 구제금, 메카 순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알라의 뜻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는 심판받을 것 외에는 어떤 메시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합니다.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위에서 강한 힘을 가진 손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구원의 손이 바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역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8100 (Ext.: 8335), 574-377-28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이전도 종족

필리핀의 마노보(MANOBO)



마노보족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들이며, 마노보 어에 속하는 언어들 중 하나를 사용한다. 그들의 기원은 동남아시아의 주문 섬들로부터 건너온 초기 말레이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그들의 공통된 문화 언어와 말레이 유산이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노보족 군에는 8개의 집단이

포함되는데 코타바토(Cotabato) 마노보, 아구산(Agusan) 마노보, 디바바원(Dibabawon) 마노보, 마티그 살루그(Matig Salug) 마노보, 사랑가니(Sarangani) 마노보, 서부부키드논(Western Bukidnon)의 마노보, 오보(Obo) 마노보, 타가바와(Tagabawa) 마노보족이 있다. 그들의 인구는 대략 15,000명에서 50,000명 이상까지 이르는데 주로 정치적 경계나 지형에 따른 명칭에 맞춰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부키드논(Bukidnon)족은 같은 이름의 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구산(Agusan) 강 계곡 근처에서 사는 아구산족은 그들의 거주지역 명칭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8개의 마노보 부족들은 대개는

삶의 모습
 마노보족의 가장 일반적인 생활 양식은 농경생활이지만 경작 방법은 매우 원시적이다. 예를 들면, 부키드논 족은 주요 작물로 옥수수와 쌀을 재배하는데, 몇몇은 구제화된 기성 기술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아직도 화전방법을 사용한다. 코타바토 족은 카인긴(kaingin)이라는 경작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경작지를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는 땅을 묵혀두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많은 땅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마노보족의 사회생활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이다. 일부가 처제가 흔하며, 남자의 부유한 정

도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부키드논족의 경우는 대부분 일일체제이며, 권력을 가진 "다투"(datus)나 족장의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가 된다.

마노보족의 정치구조는 모두가 상당히 비슷하다. 술탄(sultan)이라는 통치자가 부족의 장이 된다. 그의 밑에 왕족과 비(非)왕족 계급들이 있다. 왕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비왕족 사람들은 왕족의 권력과 권위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정치적인 측면들은 종종 사회적 측면과 연계되었다. 예컨대, 결혼식과 같은 많은 사회적 행사들은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결혼 중매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 양측은 지역다투(족장)를 통해 매듭지어야만 한다.

8개 마노보 부족들간의 인구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족들이 다수가 변화하는 세계와 애써 부대끼고 있으며 외부세계의 압박은

그들 각자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신앙
 마노보족의 종교 신앙은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개념을 따라 발전했다. 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 영들은 인간처럼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성품들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화를 내거나 즐거워하기도 한다고 믿는다.

마노보족의 종교양식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문화는 유일한 "위대한 영"의 존재를 믿는데, 이 "위대한 영"은 대개는 창조주여 여겨진다.

마노보 종족들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부족들의 종교 신앙이 그들간에 다소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양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새로운 관행들을 자신들의 신앙체제에 통합시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농업개발 프로젝트들을 통해 그들에게 윤작이나 화학비료의 사용 등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한 훈련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노보족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화영역에 대한 것들로 이 부족들은 주변의 큰 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고유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영적으로, 마노보족은 구주(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창조주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연방대법 "낙태금지법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에 보장된 여성이 임신을 중絶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의 권리를 한층 신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문제가 된 과도한 낙태에 제동을 걸 수단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7일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으로 위헌 선고했다. 낙태금지법은 텍사스 주에서 2013년 제정됐다.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텍사스 주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역효과가 발생했다.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했던 대부분 클리닉이 자격 미달로 폐쇄돼 산모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낙태 비용마저 10배 이상 뛰었다. 많은 여성단체는 "낙태금지법이 아니라 낙태시설 폐쇄법"이라며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가 합법화됐다. 그러나 부분별한 낙태가 사회문제가 되자 일부 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시술기관을 제재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런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 입법권을 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별세



미래학자인 미국의 앨빈 토플러가 27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향년 87세.

이 통신은 토플러가 부인과 함께 설립한 컨설팅회사 '토플러 어소시에이츠'(Toffler Associates)의 발표를 인용해 토플러 박사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이 재단은 별세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다.

토플러는 10여 권의 저서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미래학자이다.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이동해 갈 것을 예견했다.

그의 사회 변화와 관련한 생각은 전 세계 지도자와 기업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전 총리인 자오쯔양, 소련의 전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은 그를 멘토로 삼았다. 또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의견을 나눴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인 2006년에 면담했다.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토플러는 뉴욕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다가 나중에 부인이 된 하이디를 만났다. 이들은 대학을 중단하고 1950년 클리블랜드로 이주해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 취직했다. 토플러는 용접공으로, 부인은 노조 직원으로 일했다. 토플러는 1998년 인터뷰에서 "공장에서 경험은 공장 근로자들이 사무직 근로자보다 덜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밝혔다.

토플러는 이후 신문사에서 일하며 백악관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경제신문 포춘(Fortune)에서는 기업

및 경영 관련 칼럼을 썼다. 1961년에는 IBM을 위해 컴퓨터가 사회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썼으며, AT&T에 분사를 조언하기도 했다. 60년을 함께 한 부인 하이디가 유일한 유족이다.

트럼프 러닝메이트 후보군 압축... "강리치·크리스티 검증"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군이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로 압축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WP는 공화당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될 정당대회(7월 18-21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트럼프 선거캠프가 부통령 후보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했으며, 김리치에 이어 크리스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인선 과정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1995-1999년 하원의장을 지낸 김리치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최근 블룸버그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공화당 부통령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김리치도 "트럼프로부터 (부통령 후보) 제안이 온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멕시코계 연방지법 판사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두고 김리치가 "최악의 실수"라며 비판하고, 트럼프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김리치 카드'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크리스티는 지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다가 2월 중도하차 한 뒤 곧바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해 당 안팎을 놀라게 한 인물이다. 이후 트럼프의 '오른팔'로 떠올라 5월에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승리 시 출범할 '정권 인수위원회'로 낙점됐다. 크리스티는 앞서 부통령 후보는 물론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WP는 트럼프 캠프에서 부통령 후보 검증을 담당하는 아서 켈바하우스 변호사가 최근 김리치와 크리스티에게 100개 이상의 항목을 담은 질문지에 답하고 납세 기록과 저서를 비롯해 개인 신상과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켈바하우스 변호사는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당시 알래스카 주지사 검증을 맡은 인물이다. 그러나 김리치는 최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트럼프 캠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사무실은 이와 관련해 WP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자신의 정치 경험 부재를 보완해줄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많고, 공화당 주류층과 긴밀한 관계를 지녔으며, 의회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원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최종 부통령 후보는 정당대회 즈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트럼프 캠프 참모들은 언론의 시선을 끌고 당내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내주 말게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리치와 크리스티 외에도 트럼프 캠프의 좌장 격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주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IS 다음 테러지는 S.F. - 라스베이거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 추가 테러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배포했다고 CBS 로컬이 27일 보도했다.

전날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어(Bay area)를 배경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금문교와 금문지구, 파웰역 등이 등장한다.

금문교가 나올 때는 "일어나라 신을 믿어, 그리고 믿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살해하라"라는 내레이션이 깔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적 동성애 축제 '프라이드' 행진 장면도 등장했다. 지난 12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한 IS 추종자 오마르 마틴(29·사망)의 사진도 등장했다. 또 1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올랜도 나이트 클럽 테러범을 치하하며 샌프란시스코를 겨냥한 추가 테러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CBS로컬은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에게 친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IS나 추종 세력이 테러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을 지낸 제프 하프는 "샌프란시스코는 자유와 자부심 등 많은 것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그들(IS)이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려고 결정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레타 산체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동영상 내용이 새롭지 않으며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미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미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30일 전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사진)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낫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뒤 줄곧 국방부에 군복무 금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왔으며 국방부는 관련규정을 손질해왔다.

미국무부, 북한 14년째 '인신매매 최악국' 지정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캄보디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 3등급에 속했다. 반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1등급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군인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고 지적했다. 특히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만약 중국 당국이 적발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소나 강제노역을 하거나 심지어 숨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

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강제성매매에 처하고 있는데, 유흥업주나 사채업자에 빚을 진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곤 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중동,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여성들은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미 지역감리교 노회, 레즈비언 '집사 임명' 반대



미국감리교(UMC) 볼티모어&워싱턴 노회 안수사역위원회가 지난달 1일 투표를 통해 타라 T.C 모로(Tara Morrow)의 집사 승인 거부를 결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모로는 과반수 표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밝히고, 마커스 매튜스 주교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성직자 모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로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볼티모어&워싱턴 회의에 참석하는 리더들을 위해,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례회의 'BOOM'의 의장 찰스 파커 목사는 "성직 취향이 규율 규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지역 감리교 노회가 모로의 집사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UMC 규율 규정에 따르면, "동성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들은 성직자 후보가 될 수 없다. 교회가 인간의 조건과 사회적 압력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 성직자들은 거룩한 삶의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애 관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목회자나 사역자로 임명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다.

IS, 외국인·국가 엘리트들 노렸다



1일 발생해 인질 20명과 경찰 2명이 목숨을 잃은 방글라데시 테러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밀집한 다카 교란 지역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외국인 대상 범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테러를 '외국인과 국가 엘리트들 노린 범죄'라고 언급했다.

WP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교란 호수를 가운데에 놓고 양쪽으로 각국의 대사관지가 즐비해 있다. 사건 발생 지점 건너편 700m 떨어진 곳에 한국대사관이 있고, 근처에 일본 중국 미국대사관도 있다. 테러 발생지점 같은 편에는 독일과 러시아 카타르대사관 등이 있다. 각국의 국제학교와 문화원 등도 이 지역에 몰려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정적을 교류하거나 현지 지사를 두고 파트너로 일해오던 엘리트들이었다.

희생된 일본 남성 5명과 여성 2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엔화 차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카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다. JICA는 한국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처럼 개발도상국을 유·무상으로 돕는 기구다.

인근에는 이번 테러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탈리아의 대사관이 위치해 있다. 사건 현장과의 거리는 200m도 채 되지 않는다. 희생된 9명의 이탈리아인은 모두 의료·섬유업계 종사자였다. 섬유업체에서 일했던 시모나 몬티(33)는 임신 5개월로 다음 주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표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다.

다들 외에도 미국인 1명, 인도인 1명, 방글라데시인 2명이 테러로 사망했다. 인도 국적의 18세 소녀와 방글라데시인 희생자 1명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알려졌다.



성경도 신앙 (10)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한 안목(하-1)

이러한 모습은 퍼킨스가 가톨릭교회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영국 국교회 소속 목사의 한 사람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퍼킨스에게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이것은 모든 목사에게 커다란 위모와 가치가 있는 교리"로서, 천사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목사들을 더 많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목사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기뻐할 수 있지만 결코 섬기거나 숭배하지는 않는 것이 당연하다.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를 표현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도록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목사는 백성의 죄를 의식하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설교자를 기꺼이 도우신다는 것은 참

재 너무 많은 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과욕이며, 또는 주어진 성경본문을 무시한 채 그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된다면 회중들은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혼동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회중은 일목요연하게 설교의 요지를 기억하기가 어렵고, 가정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떠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를 통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오직 성경 진리를 발견하고 설명하는 데만 정신을 쏟아 회중의 경건과 축복이 있는 적용과 실천을 간파하는 것은 죄이다." 설교자는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교리들을 다 말할 필요가 없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다른 본문에서 구분별하게 빌려올 경우 따라가지 못한 성도들의 실망이 커져 믿음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 되기 때문이다. 에임스는 형식적으로는 말하는 것, 수사학적 서두로 시작하는 것 등 그럴 듯한 웅변을 불필요한 것으로 멀리한다. 설교자가 본문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을 세 가지 이유로 경계한다. 첫째, 인간적인 정신의 맛을 보이고, 둘째, 시간이 소요되며, 셋째, 보다 신성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설교 언어와 동작

에임스는 설교이해를 이론에서만 끝내지 않고 목회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설교자의 언어와 동작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완전히 영적이어야 한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삶으로 실천하고 중심이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며, 거룩한 권위와 함께 열심, 사랑, 운율, 자유 그리고 겸손을 드러내는 자이어야 한다.

설교자의 발음은 자연스러우며 친절하고 명확하고 회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뚜렷해야 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듣

설교는 성경 강해, 본문이 품은 것 언급하고, 회중 양심에 적용돼야 강압적 태도나 본문과 무관한 설교는 피해야...언어와 동작까지 언급

으로 감사하고도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며 설교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에임스의 설교이해

1) 강해설교의 유익

에임스는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강해임을 보여준다.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는, 성경본문이 품고 있는 바를 언급해야 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회중의 양심을 향하여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 곧 교리를 설명해 주고, 이로부터 선행, 곧 적용을 제시해야 한다. 교리는 직접적인 결과로서 성경본문으로부터 일차로 발견되어야 하고, 그런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교리를 향한 명쾌한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이나 언급이 불필요하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회중이 질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리의 토의는 증명의 형식을 요구하며,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예증의 형식을 가져오면 된다.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점은 회중의 유익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교도 설교자가 피해야 할 것

설교 중 설교자가 피해야 할 점은, 회중에 대하여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거나, 듣는 회중을 배려하지 않고 성경본문 그 자체를 망각한

3) 설교의 활용

말씀의 활용(use)은 둘로 나누이는데, 판단(judgment)과 실천(practice)이다. 판단은 정보(information)와 마음의 개혁(reformation of mind)을 제공한다. 정보는 진리를 증명하며, 개혁은 어떤 잘못을 반박한다. 그렇지만 이미 정죄된 이단을 직접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생활의 실천에 있어 요구되는 지시는 교훈(instruction)과 교정(correction)으로 구성되는데, 교훈은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를 제시하고, 교정은 마땅히 피해야 할 바를 정죄한다. 설교는 죄우에 낱신 검과 같은 것으로 살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놀린 자에게 위로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권면을,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경고를 주며 실천적 적용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열매들이 인간의 지혜나 그 어떤 육적 감정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 선포되는 설교는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에임스는 설교에는 인간의 증거들이 결코 첨가되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마땅히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에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말과 혼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완전성 그리고 엄위성이 훼손될 것을 염려한다. 인간의 화려한 말에 현혹되어 복음의 단순성을 싫어하

기에 불쾌한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무겁고 느리며 노래하는 듯 졸리는 듯 하는 목소리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말투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에 가장 부적절한 목소리로 말이 너무 빨라 서두르며 즉흥적이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강압적일 때 주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일반 법정, 광장 연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 발음, 그리고 제스처 등은 설교에는 부적절하기에 피해야 한다. 에임스에게 있어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설교는 우아하고 번지르르한 수사보다는 아주 단순한 말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설교에 있어 가식(affectation)의 양만큼 효과와 권위는 상실된다. 설교를 위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설교 전후의 기도는 설교에 도움을 준다. 설교 전 기도의 내용으로는 말씀의 목적, 효용, 우리의 간구,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의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회중들이 같은 청교도주의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신실하게 그 뜻을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교 후 기도는 감사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며 간구로 전환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나이만큼 깊어지는 것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나이가 들면서 그 드는 나이만큼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춰져 평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울타리가 없고 벽도 없는 것처럼, 봄이 되면 넓디넓은 들판에 갖가지 예쁜 꽃들이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려 있는 마음,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해 가는 것 같다.

들어 피어 있는 들꽃들은 여러 모양과 향기가 달라도 서로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리에서 만족해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은 들판의 흠내음이 좋아지고 푸른 산의 자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것 중에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어도 순수한 삶의 모습 그대로가 좋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엮어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묵묵히 바라만 보아도 그 가슴속의 따뜻함이 전해져 온다. 그렇다. 꽃이 스스로 아름답다 하지 않아도 아름답듯이, 향기가 스스로 향기롭다 하지 않아도 향기롭듯이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진실함이 그냥 느껴지리라.

따스로운 과일이 달린 나무 밑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길이나 있듯이 이렇게 작은 행복의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은 소란피우지 않고 소리 없이 서 있어도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 지리라.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까? 있을 때 잘 몰라도 없으면 표가 나는 사람, 순간 아찔하게 사람을 매혹시키지는 않더라도 늘 언제 봐도 좋은 얼굴, 넉넉한 웃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곁에 두고 있을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존재인지... 두드러지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오래 보아도 물리지 않는 스텝없는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다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극복하는 능력에 따라 그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리라. 고난을 원망하며 한숨이나 뉘우치고 가슴을 쥐어뜯는다면 고난은 고통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가 되어 순금으로 제련되는 기쁨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훨씬 성숙하고 건전한 인생을 만들어 가리라.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큰다고 말한다. 사람은 일생동안 커가야 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절없는 아이가 아닐까.

우리가 사실 이런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건, 알게 모르게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이 삶에 힘이 되기 때문이리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재물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않아도 그 재물에 함께 하는 작은 행복을 느끼듯이, 부부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저런 가정 일을 해결해주진 않지만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용기를 내듯이 이런 작은 행복들 때문에 큰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맞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소중한 것을 찾을 줄 알아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삼금한 행복을 들추어내고, 물 한 모금에서 감동의 눈물을 찾을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고집해가며,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감격해하는 마음에, 스스로 "내 마음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구나" 느껴볼 수 있는 잠깐의 마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갈수록 그렇게 내 사랑도 늘어갈 것이고... 온갖 좋은 것들이 함께 늘어갈 수 있다면 늙는 것도 서럽지 않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사는 우리의 지체들... 부딪 없이 격이 없이 그대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며칠 만에 교회 문턱에 들어서니 그런 모든 분들이 그저 고맙고 또 감격스럽다. 서로의 고마움을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리라.

changsamo1020@gmail.com

담임 목사님 청빙

Omaha 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maha)
www.kpcomaha.org

오마하한인장로교회는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교회들 섬기기를 열망하는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이며, Nebraska주의 중심 도시인 Omaha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소개서(Ministry Information Form)는 pcusa.org/clc 클릭 후, MIF ID: 10660를 참조).

제출서류 (한글과 영문)

- PCUSA PIF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2 Pages 이내), 가족사진
-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 (각 2 Pages 이내)
- 목회비전 (각 2 Pages 이내)
-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인수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일자와 CPM의 목사후보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DVD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3명의 추천서
- 명주권 사본 제출 (명주권소유자 경우)

제출 서류/자료는 비밀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자에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현재 PCUSA 목사 또는 가인이 가능한 신 목사
-정규 신학대학원 M.Div. 학위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하신 분
-한국어 설교와 영어로 기본 목사소통 가능자

보내실 곳: Dr. Halla Kim (Email: hallakim@unomaha.edu)
Search Chair of the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2506 Harney Circle, Omaha, NE 68154

교회 주소: 14015 Q St, Omaha, NE 68137 **전화:** (402) 733-3383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여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영 어 :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쪽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쪽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p>■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p>	<p>■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p>
---	--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진지한 신앙적 태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육(몸), 혼(마음, 정신)을 가진 3중적 피조물입니다. 이 3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이 배열순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질의 삶을 사는지 결정합니다. 이 6가지 그룹 중 당신은 어디에 속하였는지 확인,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영 > 혼 > 육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영이 혼을 주장하고 혼은 육을 주장합니다. 영이 혼에게, 혼이 육에게 해야 할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 육은 곧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주장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므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복락이 보장된 최고의 그룹입니다.

2. 영 > 육 > 혼 이 경우는 영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이 혼을 주장합니다. 영이 육에게 해야 할 일을 시키면, 육은 혼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헌신되고, 신령한 사람들이지만, 육신적 헌신이 혼에 순종하지 않는, 계획성 없고, 혼련

되지 않는 몸으로 인해 남비되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3. 육 > 영 > 혼 영이 혼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아마도 그는 신체적인 것과 연관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진지한 사람으로 구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육의 기분에 좌우됩니다.

4. 혼 > 영 > 육 구원받지 못할 위험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혼이 영 위에 있고, 영은 육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근본진리들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 성경의 영감설 등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유주의자, 이단, 율법주의자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하나

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5. 혼 > 육 > 영 혼이 육 위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용은 갖지 않지만, 육이 영 위에 있기에 위험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지나치게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행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혼을 영 위에 두고, 육이 혼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보고, 그리스도인 전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육 > 혼 > 영 육이 혼을 주장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배열이므로,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경 등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현실주의자들로서, 그들의 좌우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는 식으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히포리 무신론자들이 이런 그룹에 속합니다. 당연히 구원이 없고, 혹독한 지옥행벌만 보장된 최악의 그룹입니다.

당신은 위의 6가지 그룹 중 하나에 속합니까? 당신은 어떤 그룹을 선택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 할 '혼>영>육', '혼>육>영', '육>혼>영'의 그룹에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최악의 그룹인 '육>혼>영'에 속한다면 절망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육', '영>육>혼', '육>영>혼'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고, 최선인 '영>혼>육'을 선택하면 천국의 영생복락이 보장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동성애, 인종차별, 다민족교회 관심

PCA 정기총회 20-24일 앨라배마 모빌

미국개혁보수장로교인 PCA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앨라배마 모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졌다. 22일 오전 9시 15분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3명의 패널리스트들이 나와 전 총대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이는 과거에 보기 어려운 일로, 자신도 강한 유혹에 시달렸다는 사회자 공사의 진솔한 고백이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약 45개의 선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활발한 논의가 계속돼, 다방면에 걸쳐 이 시대에 직면한 문제들을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커버해 나가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인종차별적 미국의 전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세미나와 회의뿐 아니고, 저녁 예배 중 하나인 목요일 예배 설교를 흑인 목회자에게 맡겼다. 설교자가 "하



나 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으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격적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고 전하자, 참석자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따뜻함과 일체감을 체험했다. 또한 교단내 다민족 전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Advancing the Gospel in a Changing North America에서는 패널리스트 3명 중 1명인 마라나타 정의 발표가 있었다. 마라나타 정의 미 동북지역 필라

델피아에서 다민족 교회를 개혁한 사례를 소개하며 가능한 한 많은 민족을 수용해 각 민족교회마다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게 했다. 한편 PCA 한인교회연합회 회원들이 교단 본부 행정위원회(교단총무 로이 테일러 박사) 초청을 받아 목요일 아침 6시 반 모임을 갖고 식사 후 기념촬영 했다(사진). (기사제공: 샬럿장교회)



한미연합회 (KAC) 36회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36회 전미대학생 리더십컨퍼런스 한미연합회(KAC) 주최 6개주 참석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가 스테이트팜 보원회사 후원으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패라다이스 스프링스에서 열렸다. 데이빗 류 LA시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치, 재정관리, 범죄 및 스포츠계의 류현진 에이전트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연을 통해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학습했다. NCLC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격려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SCIP)을 통해 유망한 한인대학생들에게 개인역량과 전문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알라스카를 비롯해 미국 6개주에서 한인 대학생들이 참여해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 2017 NCLC 신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조지아해병목사회 제 2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회장 김종권 목사, 부회장 홍문공 목사 조지아해병목사회 제 2회 정기총회 개최

조지아해병목사회(회장 유지화 목사)가 26일 오후 6시 제 2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김종권 목사(199기, 애틀랜타찬양교회), 부회장에 홍문공 목사(116기, 애틀랜타사랑교회)를 선출했다. 김종권 목사 자리에서 열린 제 13차 월례회 겸 정기총회는 제 1부 예배, 제 2부 만찬, 제 3부 회의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어태용 목사(311기, 총무)의 사회로 박관영 목사(277기, 서

기가 기도하고 설교는 유지화 목사(144기, 회장)가 '마귀 잡는 해'(약4:7)란 제목으로 "이제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적인 해병목사가 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 마귀를 때려잡는 일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섭 목사(31기, 고문)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만찬 후 이어진 회의에서 부회장 김종권 목사가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회장 김종권

목사는 "선, 후배 목사님들이 맡겨준 임기동안 주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해병만의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회원들을 섬길 것이며, 성령충만한 조지아해병목사회의 모습으로 복음전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초대회장 유지화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배창섭 목사(31기), 유지화 목사(144기) △자문위원: 류영호 목사(166기) △회장: 김종권 목사(199기) △부회장: 홍문공 목사(116기) △총무: 어태용 목사(311기) △사서: 박관영 목사(277기) △협동총무 및 회계: 김민수 목사(362기). 제 14차 월례모임은 7월 17일(주)에 야외예배로 모인다. 조지아해병목사회의 연락처는 총무(404)547-4754, 회장(678)357-2359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뉴욕목회회 6월 예배에서 이수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목양목표로 뉴욕목회회 6월 월례모임

뉴욕목회회(회장 김전 목사) 6월 월례모임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대한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문근 목사 인도로 기도 정대영 목사, 특송 김태욱 목사, 말씀 이수영 목사, 축도 정도인 목사, 광고 김택용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수영 목사(등대교회 담임)는 "이

스토리가 있는 사역'(고전15:9-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즘 이런 사회나 문화나 너무 힘들다"며 "이런 시기에 설교/목회가 쉽게 되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윤동주의 시를 소개하며)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화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목회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내 힘으로는 안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바울처럼 '발포목회'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인 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는 것이 목회성공이다. 이 시대정신은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살려낼 수 있는가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교회개혁 및 미자립교회 6차 사례보고는 김경열 목사(뉴욕영안교회 담임)로, "교회를 3차 례 개척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조했다. 김경열 목사는 "개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신은 쓰임 받았다"며, 한국에서의 첫 교회개혁, 뉴욕에서 양병희 목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오찬은 박문근 목사 막내딸 팽종익, 정은 집사부부가 제공했다. (유원정 기자)



남가주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제 70회 총회 회장 조영제 목사, 부회장 홍순도, 안덕원 목사

남가주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총회에 앞서 최훈인 목사의 인도 제 70회 총회가 6월 28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조영제 목사 설교로 진행됐

으며 조영제 목사는 "바울의 신앙관"(행20:24)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한 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조영제 목사 △제1부회장 홍순도 목사 △제2부회장 안덕원 목사 △고문 최훈일 목사 △총무 신희성 목사 △서기 최대준 목사 △사회계 신원철 목사. 이외에 △회원부장 박용석 목사 △진교부장 최희량 목사 △선교부장 김민희 목사가 유임됐다. 원로목사회 다음모임은 7월 7일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남부개혁신학교 여름학기 강의가 열렸다. 여름학기 박사과정 연합집중수업 남부개혁신대원 LA캠퍼스, 6월26일부터 한 주간

남부개혁신대원 LA캠퍼스(SRTS LA)에서는 여름학기 박사과정(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연합집중수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성경적 교회론 신학 세대를 목격한 것을 해석 적용하는 '요한복음서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론'을 강의했다. 이영기 박사가 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적 해석 정립, 정용갑 박사가 선교적 교회론 이론, 프레드 던트라는 김희창 박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론 적용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타난 교회론, 김경준 박사가 선교적 교회 이해를 주제로 팀티칭을 실시했다. 또한 오늘날의 소통문제인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성경해석과 설교 전달법을 김수영 박사가, 심리학적 의사소통 기술을 캐더린 박사, 성경적 의사소통 기술을 장영규 박사가, 복합문화사역을 위한 의사소통을 김희창 박사가 이준영어로 실시했다. 남부개혁신대학원 신대원은 가을학기 9월에 학사(B.A.), 석사(M.Div., M.A) 박사과정에 편입학할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입학문의는 213-268-9367, 또는 eunsoon1025@hanmail.net (Director Dr. Jeon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부개혁신대원)

성경압축파일

<7면에서계속> 예전에 신장 결석(kidney stone)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방에서 데굴데굴 뒹굴었다. 견디다 못해 한방중에 응급실까지 갔었다. 후에 소변을 통해서 나를 괴롭혔던 그 돌이 나왔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렇게 작은 것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은 말뚝이 몸 안에 들어있었다고 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는가?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이 그런 가시(말뚝)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면 차가 내려앉게 되고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바위가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바람을 뺀 다음 밀면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움푹딴쌀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다. 방법은 하나다. 자신만만한 자아의 바람을 빼야 한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자아에서 교만의 바람을 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를 가두어 두었던 인생의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말뚝)을 주실 때가 많다. jinhlee1004@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2016년 여름학교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6년 여름학교가 가을학기 기준 유치원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전공 교사들의 일대일 학습지도와 주 1회 야외학습, 뉴욕주 표준시험과 특목고 입학시험 준비 및 대입 준비 등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도한다.

▲문의: (718)886-4646, (347)210-1245

'작은 교회를 위한 지성소 찬양예배' 신청

'섬김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 교회'를 위한 지성소 찬양예배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5교회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예배 사역자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인도하는 지성소 찬양예배 신청 대상 교회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이 된 교회, 재정이 없는 교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 한번도 찬양집회를 하지 않은 교회다.

▲문의: (646)258-4161

“내가 고쳐주마” ... “성령의 능력으로”

뉴욕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 설교 최창섭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지난 1일 “성령의 능력으로”이라는 주제로 특별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오후 8시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 대회에서 회장 김영환 목사는 “기도하며 섬기는 해를 표어로 정하고 회기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해왔다”며 “기도만이 살 길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던 사무엘, 히스기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지금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모여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국내의 환경들을 맞이해 주국, 그리고 미국의 영적각성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특별연합기도회가 1일 신광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총무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황형일 목사, 성경봉독 안경순 목사, 찬양 목사장로합창단,

설교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회), 헌금기도 김용의 목사, 헌금특주 유진용 집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역대하 7:14와 예레미야 33:3을 본문으로 “내가 고쳐주마”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고침받아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며, 우

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 모두 처음 상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교회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바로 설 때 가정과 사회가 바뀌게 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한 기도의 응답으로 관계회복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고침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이 세대를 깨우며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라 되자”고 강조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성소년을 위해: 강주호 목사 △조국과 조국통일을 위해: 김경열 목사 △미국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해: 정순원 목사 △뉴욕복음화와 뉴욕목회자를 위해: 김태욱 목사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를 위해: 김상태 목사

이어 김영환 목사의 인사가 있은 후 장현숙 목사의 광고, 김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이 장경동 목사 설교에 앞서 찬양하고 있다.

“심, 회복, 비상” 주제로

뉴욕프라미스교회, 장경동 목사초청 부흥성회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김남수 목사)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장경동 목사(대전 교회)를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심, 회복, 비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장경동 목사는 둘째 날 “전쟁”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쟁에는 육신의 전쟁과 영적의 전쟁이 있는데,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 육신의 전쟁은 개인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과 에사와 야곱 사이의 갈등은 개인 간의 전쟁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죽은 의인이 되지 말고, 사는 의인이 돼야 한다. 망하는 의인이 되지 말고, 흥하는 의인이 돼야 한다. 삶은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

요하다.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엘리제사장 때는 블레셋에게 패했다. 사무엘 제사장 때는 블레셋에게 승리했다. 왜냐하면 엘리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은 귀신, 미혹의 영, 마귀와의 싸움이다. 영적 흐름이 바르게 돼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베드로, 사도 바울의 믿음 위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콜롬비아 단기선교, 페루 집짓기 점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6월 정기예배가 29일 뉴욕초대교회(이사장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홍석 목사(해외국장) 인도로 기도 조상숙 목사(협력국장), 말씀 박진하 목사(교본), 합심기도(김홍석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자문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전도서 4장 7-12절을 본문으로 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연합의 힘으로 지구촌 2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며 이 일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2부 회무에서는 오는 8월 15일

출발하는 콜롬비아 단기선교 준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다녀온 페루에 ‘사랑의 집’ 4채를 지을 수 있는 후원금(6천 달러)을 보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헌신의 손길을 통해 후원금이 마련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후원금을 보내 사랑의 집 4채를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사랑의 집짓기(1채 1500달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다짐하자”고 말했다.

콜롬비아 단기선교 파송예배는 7월 월례모임과 함께 27일(수) 10시30분 뉴욕순복음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기사제공: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로 수고 기억하며 복음전파에 최선”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회 퀸즈장로교회서

뉴욕원로목사회(회장 박성만 목사) 6월 정기월례회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성만 목사 인도로 기도 한재홍 목사, 설교 김성국 목사, 감사장 전달, 광고 한재홍 목사, 축도 장영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해와 같이”(시 72: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맥 아더 장군의 말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주 앞에 가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영향력은 남아있다”며 “원로목사님들이 그동안 뉴욕에서 한인 이민사회의 발전과 부흥에 끼친 영향력은 남아있다.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원로목사님들이 해 같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회하시고 삶을 사셨으므로 뉴욕이 지켜지고 후배들이 사역하고 있다. 다음세대인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사역하며, 어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열방에 복음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감사장을 전달받은 김성국 목사는 “친구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부러워하는데, 원로가 계시어서 기쁘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는 원로목사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오찬과 선물, 책 등을 증정했다.

한편 원로목사회는 월례회를 마치고 초청교회의 전도지를 활용해 플러싱 한인 마켓 등에서 전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호스피스 병원서 재즈음악회

뉴욕 브롱스 캄버리 호스피스 전문병원 환자들을 위한 이노비 재즈 음악회가 지난날 30일 열렸다. 이노비(대표: 강태욱)는 3번째 이 병원을 찾아 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은 환자들을 위로해왔다.

이번 공연은 뉴욕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재즈 색소포니스트 남유선이 음악감독을 맡아 왔으며,

베이스 김다솔, 드러머 파비오 로야스, 피아노와 보컬은 박소영 유재하 등이 공연했다.

비영리단체 이노비 후원문의는 (212)239-4438, 이메일 happiness@EnoB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이노비 음악인들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크린재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부 예배: 오후 8: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300 State St, Hicksville, NY 11802 www.hicksville.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예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영국)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2 Wood St, Hicksville, NY 11802	뉴욕새벽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8: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48-18 15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새사임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45 주일 3부 예배: 오후 8: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40-54 15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윤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40-54 15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순복음안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40-54 15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210-25 Horace Harding Blvd, Rego, NY 1158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최상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부 예배: 오후 8:1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300 State St, Hicksville, NY 11802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2:45 주일 3부 예배: 오후 8:0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37-17 154 St, Flushing, NY 11355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 예배: 오후 8:0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220-18 Union Turnpike, Rego, NY 11584	에사방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8: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41-05 42 St, Queens,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15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89-09 22nd Ave, East Elmhurst, NY 1136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들 L.A.: Tel: (323) 695-0908 N.Y.: Tel: (718) 262-4194 Tel: (718) 262-4194, Fax: (718) 262-419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907) 382-8764, Fax: (907) 382-8764 1111 S. Kalia Rd, Honolulu, HI 96813	아르헨티나 새일교회 담임목사: 최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54) 114-431-4785 Av. Cabildo 2353, CAP.FED., B.E., A.E.,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최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56) 2122-7522, Fax: (56) 2122-7522 Santiago Cerro - 3 Casita 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416) 498-0900 E-mail: hannah@hannah.org 280 Ryland Rd., North York, ON M2J 1S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복 목사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596) 671-6788 E-mail: hannah@hannah.org Cervantes Ing., 1001, Anacoa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808) 965-1866 1130 S. Liliuoi Hwy 2-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강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Tel: (808) 947-8252, Fax: (808) 947-8252 2222 Malama St, Honolulu, HI 96822

6·25상기...교회연합 체육대회, 사생대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루마니아교회 등 타인종 참석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교회연합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라홍채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어린이 사생대회 및 사역자 성경세미나가 솔로몬대학교와 임마누엘 선교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옐렌지카운티(OC) 기독교평신도 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가 주관한 제 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지난 6월 25일 세리토스에 있는 밸리 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12개 교회, 16개 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루마니아 크리스천교회 등 타인종 교인들도 참석해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다.

영 김 가주 하원의원의 시축으로 시작돼 오후 4시 경 결승전이 끝난 축구경기는 일반교회부와 초정교회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일반교회부는 은혜한인교회와 처음 출전한 루마니아크리스천교회가 결승전을 벌여 루마니아교회가 승리했다.

루마니아교회 팀 주장은 "한국교회들이 체육을 통해 연합과 친목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형 경기에 대해 알

게 된 것이 큰 기쁨"이라고 밝히고 "동유럽 쪽에도 축구와 비슷한 풋넷(Footnet)이란 경기가 백여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윤우경 회장이 진행을 맡아 주 종목인 축구경기, 동서남북 친목운동회, 어린이 사생대회로 진행됐다.

윤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36년 전 6.25 한국전쟁을 기념해 성도들의 체력단련과 교회 연합을 위해 시작된 교회연합체육대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체육대회 우승팀과 사생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축구일부부: 1등 루마니아 크리스천교회, 2등 은혜한인교회 1팀, 3등 복음의빛교회/ANC 온누리교회 △축구초청부: 1등 Kids of Jesus Christ, 2등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3등 두나미스장로교회/갯츠비전교회 △어린이사생대회(주제: 6.25/체육대회): 대상 최고은(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조동 1등 김상하(남가주순복음교회), 이은성(남가주순복음교회), 유치 1등 최은유(뉴라이프 뉴비전교회).

(기사제공: OC평신도연합회)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 성경세미나

강사 나홍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강의

솔로몬대학교와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공동주최한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 성경세미나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저자인 나홍채 목사(뉴욕제자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나홍채 목사는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라 언급하며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계획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다니엘서만큼 주님 오실 때를 예언한 곳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라 목사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 그때 세워지는 왕이 적그리스도"라 언급하고 "지금 은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수가 잘 때 막을 내린다. 따

라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에는 이방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DNA가 있다.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가 열리기 전 예배는 백지영 총장(솔로몬대학교) 인도로 시작, 김재을 목사(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정종윤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성경봉독을, 라홍채 목사가 '전도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소연 목사가 찬양을, 그리고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중경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소년소녀 뮤지컬 찬양 Seeds of Worship 2016 정기공연이 나침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새로운 날(NEW DAY)" 주제

소년소녀 뮤지컬찬양 Seeds of Worship 정기공연

Seeds of Worship(단장: 에스더 박) 소년소녀뮤지컬 찬양팀이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6월 25일 오후 7시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2010년 창단해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 있는 Seeds of Worship은 80여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찬

양 뮤지컬 팀이다.

다양한 찬양과 뮤지컬을 통해 미래의 리더가 될 꿈나무들을 키워 온 Seeds of Worship 찬양 뮤지컬 팀은 금년에는 "새로운 날(NEW DAY)"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뮤지컬을 통해 표현했다.

에스더 박 단장은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특히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해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즐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깨달아 오시는 시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공연을 마친 Seeds of

〈4면에서계속〉 그리하므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물러가고 지루하고 무더운 날들이 사라지고,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 복음의 진보만 크게 나타내게 되기를 축원한다. 잘 적용되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샤르리라는 불란서 사람 하나가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사서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친구에게 버림받고, 바깥세상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조각 하나를 들어 그 쓸쓸한 독방 벽에다 이렇게 새겼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굴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 틈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났다. 그것은 벽 위에 뚫린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향하여 뻗어가기 시작했다. 샤르리는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물을 조금씩 아껴 그 푸른 잎사귀에 부여주곤 하였다. 새싹은 마침내 아름다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났다.

꽃나무가 탐스러운 꽃송이를 터뜨리자 그 고독한 포로는 전에 벽 위에 새겼던 글귀를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새겨 넣었다. 이 죄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열방 죄수를 면회는 어린 딸을 통하여 꽃소식이 퍼져나가 마침내 조세핀에게 전달되었고,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폴레옹에게 석방을 간청하였고 마침내 풀려날 수가 있었다.

작은 생각의 변화,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이 시대의 정신일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하고 풍성하게 사랑을 돕고 용기와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바로 너와 내가 아닌가?

revskna@gmail.com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위탁아동들을 위한 사랑의책가방 후원캠페인을 7월 한달간 실시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키니정 조장이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 실시

KFAM, 위탁아동위해 7월 한달간

위탁아동을 돕는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 정 조)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책가방' 후원캠페인을 실시한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은 위탁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제공해 아이들이 새 학기 첫날 기분 좋게 등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30분 KFAM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KFAM은 7월 한 달 동안 책가방과 학용품을 사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한다. 각 25달러로 50달러를 후원하면 책가방과 학용품 모두를 선물할 수 있다. 책가방과 학용품을 직접 사서 기증할 수도 있다. 학용품은 학년별로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며 상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7월 31일까지 수표(payable to: KFAM, 메모란: Backpack Drive)를 상담소(3727 W. 6th St., #320, LA, CA 90020)로 보내거나 웹사이트(KFAMLA.org)에서 크레딧카드로 내면 된다. 캠페인을 거쳐 마련한 책가방과 학용품은 백투스쿨 전에 LA카운티아동보호국을 통해 한인 및 아시아 위탁아동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카니정 조 소장은 "지난 두 차례

실시됐던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학용품을 준비하면서 위탁아동들을 위해 책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하나 더 마련해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교회에서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디나에 위치한 나침반교회와 치노에 위치한 카리스교회의 경우 여성교회에서 위탁아동들을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에 따르면 2014년 1월 시작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한인 25가정이 위탁자격을 얻어 한인 어린이 27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탁에서 나아가 8명의 한인 어린이가 입양되고 1명이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동지찾기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리를 잡자 상담소는 위탁가정 대상을 한인에서 아시아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시아 단체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 FFA)가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7월 중 FFA를 신청해 2017년부터는 에이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13)235-4848, 4868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동양선교교회 설립 46주년 기념행사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는 설립 46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감사음악회는 오는 17일(주) 오후 1시30분에 갖게 되며 출연진은 찬양선교팀 옹기장이, 아베마리아 김승덕, 색소포니스트 박찬경, 2015 CCM루키 대상 장승기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감사부흥회는 오는 29일(금) 저녁 7시, 30일(토) 새벽 5시30분과 저녁 7시, 31일(주) 주일예배에 갖게 되며 조용중 선교사(GNMS대표, 국제개발 NGO 글로벌 호프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문의: (323)466-1234

감사한인교회 전도집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조영 장로 초청 Go! 전도집회를 8일(금) 오후 7시30분, 9일(토)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문의: (714)521-0991

한인기독교상담소 세미나

월드미션대학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가 '백세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라 전하라'라는 주제로 7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미나는 △7월 과거와 친해지기 △14일 현실과 친해지기 △21일 다가를 미래, 제대로 준비하기 △28일 아름다운 통합과 나눔 등의 소주제를 다루게 된다. 등록비는 20달러이며 사전 등록해야 한다.

▲문의: (213)738-6930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 미주순회공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지휘 김형기 교수) 미주순회 공연이 16일(토) 오후 7시30분 팔번스쿨 지퍼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라크마 합창단(지휘 윤임상 교수)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310)738-0485/류준영 회장, (310)663-3301/김영규 총무

KAMA-OMC 여름음악축제

KAMA여성합창단(회장 한경자)과 OMC남성합창단(단장 최영민)이 함께 공연하는 여름음악축제가 오는 10일(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292-9385, (818)522-9285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상 등단 발표 및 시상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는 7월 30일(토)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에서 2016년 제 30회 신인상등단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자는 시: 김선민(당선), 임성진(가작) △수필: 나무섭(당선), 최수진(가작) △소설: 문성학(당선), 김승년(가작).

▲문의: (213)249-0771

베델한인교회 여름창조과학 캠프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는 여름창조과학 캠프를 오는 8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개최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50명이며 등록마감은 7월 24일까지. 등록비는 100달러(필드트립 45달러, 베델한인교회 교인 자녀 우선).

▲문의: (949)854-4010

은혜로교회 이필재 목사 초청 부흥성회

은혜로교회(담임 김정환 목사)는 오는 15일-17일 이필재 목사를 초청, '은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15일(금) 저녁 7시30분, 16일(토) 새벽 6시, 17일(주일) 저녁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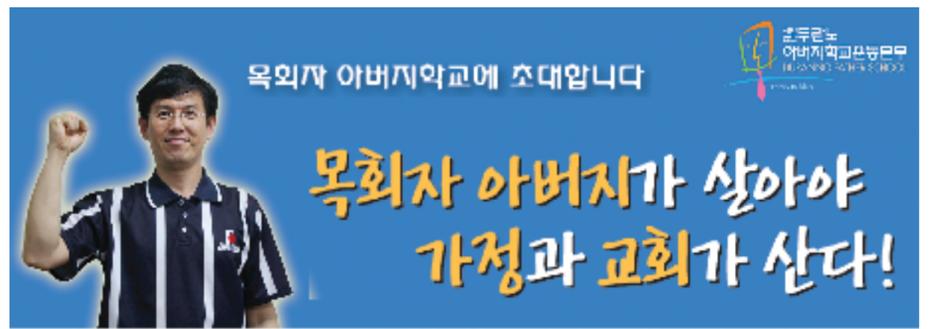
▲문의: (310)787-7766

Worship(SOW) 소년소녀 찬양뮤지컬 팀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특별행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2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또한 2016-2017년 시즌을 위해 새로운 단원(New Member)을 모집하는데, 오디션은 2016년 7월 9일(토) SOW의 연습 장소인 남가주

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면 된다.

공연 문이나 오디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디렉터인 에스더 박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Seeds of Worship)



자 17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OC지역 갈보리 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개설됩니다. 시모니, 심드립... 아버지 되시는 복사님을 저희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 보내주세요. 목회자 아버지가 살면 기쁨이 살고, 주님의 눈 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 제12기 (6208차)

일시: 7/18(월) 오후 4시 ~ 9시, 7/19(화) 오전 9시 ~ 오후 9시, 7/24(주일) 오후 4시 ~ 9시, 7/31(주일) 오후 4시 ~ 9시
장소: 갈보리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 1인당 참가비 \$120.00 (교재 및 저녁 식사 제공)

도와주신 분: 권 순 목사(미주 아버지학교 지도부사), 사 애틀랜타교회, 김경렬 목사_산티모니키한인교회, 김근수 목사_One Hope Church, 김영찬 목사_호사랑성교회, 김인구 목사_예수사랑교회, 박세현 목사_매수루교회, 이상훈 목사_심상삼교회, 티드광 목사_매구미교회

문의: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T(213)382-5454, 제12기 진행자 김인구 목사 T(213)700-4689



“정직, 청렴, 고결 실천하여 본질회복”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주최 ‘한국교회개혁기도성회’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하는 ‘한국교회개혁기도성회’가 6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 감성하고자 열린 이번 기도성회는 “우리는 한국교회 인테그리티(정직, 청렴, 고결)를 실천하겠습니다”는 표어로 한국교회의 개혁을 바라며 기도하고 결단했다. 이날 메시지는 대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전했다. 상임부대회장 권경환 목사(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가 대표기도, 이경숙 회장(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성경봉독, 정균양 목사(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가 봉헌기도, 상임본부장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

협의회 이사장)가 인사와 알림, 부대회장 최길학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가 동성기도, 상임대회장 김용완 목사(서울순복음교회 원로)가 선언문 낭독과 축도를 했다. 봉헌찬양은 테너 박주옥 목사(백석예술대 교수)가 맡았다. 에베소서 5장 18-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충만을 깨끗한 삶으로’라는 설교를 전한 소강석목사는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한국교회 자화상을 들여다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개혁”이라며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하고 삶을 개혁해야 한다.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목사는 또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개혁의 근거는 예수그리스도이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하며,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우리 할 일은 다시 성령 충만 받고 삶과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의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8개 항 선언문을 발표했다. 첫째,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갱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더욱 연합하겠습니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회내의 문제를 세속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내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한국교회는 민족은 물론 세계의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제공: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CTS 나라사랑 부흥집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주최 ‘나라사랑 부흥집회’가 30일 저녁 경북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흥집회의 주제는 ‘통일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이었다. 포항제일교회 이상학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CTS가 이번에 울릉도·독도 기

도원정대 행사를 기획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린다. 이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울릉군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준식(울릉교회) 목사는 “아무나 이곳 울릉도에 들어오지 못한다. 적당한 기후와 파도 등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 집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표로 기도한 울릉군기독교연합회 총무 김진영(동동제일교회) 목사는 “육심 많은 일본이 터무니 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 일

을 바로잡고자 서울, 부산, 광주 등이 땅 곳곳에서 기도원정대를 울릉도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회장 감경철 장로는 인사말에서 “2년 전 영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국 기도원정대를 파송해 무너진 영국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며 “축복받은 섬 울릉도에서 CTS 나라사랑 부흥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울릉도 교계에 따르면 울릉도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32% 정도이다. 한국교회 평균 복음화율 보다 10% 이상 높은 셈이다. 인구 1만여명에 38개의 교회가 설립됐다. 1909년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울릉도의 기독교인들은 순교자 4명을 배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상황 속의 성서학’ 다양한 관점 제시 SBL 국제학술대회 연세대서 개막

세계 성서학자들의 한마당인 제 34회 SBL(성서학) 국제대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막을 올렸다. ‘경계를 넘어, 21세기 다중사회에서의 성서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7개국에서 50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날 개막식에선 5명의 학자가 기조 강연을 했다. 이들은 최근 신학계의 이슈 중 다양한 ‘상황 속의 성서학’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페르난도 세고비아(반더빌트대) 교수는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을 통해 90년대 이후 발전된 ‘상황화 성서신학’을 재조명했다. 상황화 성서신학이란 성서의 상황과 독자의 상황을 고려해 성서를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성서학 분야다. 그는 “최근 상황화 성서신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는 발전이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화 성서신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달라 브렌너(암스테르담대, 텔아비브대) 교수는 상황화 성서신학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철저한 자기비판을 요청했다. 그는 성서학 내에서 상황화라는 담론이 지나치게 지역화, 정치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람직한 상황화 성서신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황, 성서의 상황 사이에 상호 작용하며 역동적인 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라드 웨스트(파울루나탈대) 교수는 “아프리카에서는 성서를 아프리카 고유의 이미지와 닮은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며 “현재 아프리카

신학 사조의 흐름은 탈식민주의 문제를 넘어 서양의 성담론과도 만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미토포 김용환(하트포드신학교) 교수는 자신의 ‘하이브리드(혼성) 정체성’이 열어준 해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소개했다. 그는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흑인 폭동 사태로 궁지에 몰렸던 아시아계 미국인의 절망과 답답함을 계기로 상황화 담론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학문의 엄밀성을 충족하기 위해 상황화 성서신학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동체의 경험에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미(한신대) 교수는 한국의 상황화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성서와 동양 고전의 대화를 제안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동양 문화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성서신학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기독교수 400여명, 캠퍼스 복음화 다짐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부산대서 2박3일 열려

전국 대학의 기독교수들이 부산에 모여 캠퍼스 복음화를 다짐했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회장 김형길 전주대 교수)는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 부산대(총장 전호환) 10·16기념관에서 ‘거룩한 스승이 되자’(요13:15)라는 주제로 제31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를 개최하고 ‘비전 선언서’를 채택했다. 전국 150여개 대학에서 400여명의 기독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는 김용의 선교사와 윤인규 유진소 김문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회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

도했다. 이들 강사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캠퍼스가 곧 거룩한 곳이다. 복음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명을 다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독교수가 되라”고 전했다. 이어 “니고데모처럼 변화해 캠퍼스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기독교수들은 30년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 선언서’를 채택했다. 부울경기독교교수연합회 이선복(동서

대) 회장의 선창으로 채택된 ‘비전 선언서’는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기독교수가 된다’(사명) ‘지난날의 잘못된 개인의 자아와 습관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수가 된다’(회개) ‘성령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을 융합,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기독교수가 된다’(연구·봉사)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정직과 존중, 질서를 세워가는 기독교수가 된다’(대학문화 선도) ‘세상 딸같은 교육의 비전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수가 된다’(세계선교 비전) ‘캠퍼스 선교사로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이루어간다’(신앙공동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줄 잇는 미스바 집회... 동성에 등 핫이슈에 각성 촉구...국가적 위기로 인식

‘미스바 기도 대회’ ‘미스바 통일 기도회’ ‘미스바 구국금식성회’... 최근 교단이나 단체에서 열린 연합 집회 이름들이다. 동성에 확산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핫이슈와 맞물려 개최됐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주로 ‘통일’이나 ‘구국’을 주제로 열렸다. 이들 기도회의 공통점은 ‘미스바’란 이름이다. 미스바 기도회는 국가의 미래와 긴급한 주제 앞에서 교회 전체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에 뿌리내린 미스바 기도회는 어떤 유래와 의미가 있을까. 미스바(mizpah)는 히브리어로 ‘감시탑(watchtower)’. ‘경계초소(guardpost)’를 뜻한다. 개혁개정 성경에 31회 등장하는데, ‘미스바 땅(수 11:3)’ ‘미스바 골짜기(수 11:8)’ 등에서 지명으로 사용됐다.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는 여러 곳이다. 영토 분배 시 유다 지파에 주어진 미스바(수 15:38)를 비롯해, 요단강 동편 길르앗의 미스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일전을 준비한 성읍(삿 10:17), 갈릴리 북쪽 헤르몬 산 인근의 미스바(수 11:3)도 있다. ‘미스베(수 13:26)’와 동일한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가장 유명한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수 18:26)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한 ‘텔 나스베’ 지역으로, 현재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 수도인 라말라 인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1926~36년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이 이뤄졌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BC 9세기 르호보암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벽과 가정집, 히브리 어 문자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곳 미스바는 베냐민의 악행에 대해 응징을 결의한 곳이며(삿 21:1),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회개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이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

였나이다’라고 하며 회개했다(삼상 7:6). 해발 780m 고지 위에 모인 백성들은 영적 각성의 예배를 드렸고, 습격해오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삼상 7:5-16). 한국교회의 미스바 기도회는 이곳 베냐민 미스바에서 행해진 회개의 제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고신대 이상규(역사신학)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스바란 이름으로 처음 도회를 시작한 것은 한사방선교교회다. 이곳 대표였던 김한식 목사는 1975년부터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해마다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국내외에서 개최했다. 90년 대 초반에는 투기와 향락 문화에 몰든 사회를 향해 민족의 대각성을 촉구하는 등 선행이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최로 ‘2016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가 개최되고 있다.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참여해 회개와 연합, 통일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라말라의 베냐민 미스바에서도 기도회를 가지러 했으나 안전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올 여름 휴가, 전남 기독교 순례길로 한국전 때 77명 순교 염산교회, 애양원, 문준경 기념관 등 포함

전남 지역에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는 순례길 탐방 코스가 만들어졌다. 휴가철을 앞둔 크리스천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9일 서울 중구 한식당에서 순례길 탐방코스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내에 개발한 9개 순례길 코스를 소개했다. 순례길은 서부 지역 5개 코스, 동부 지역 4개 코스로 나뉜다. 2-4일 일정으로 탐방이 가능한 코스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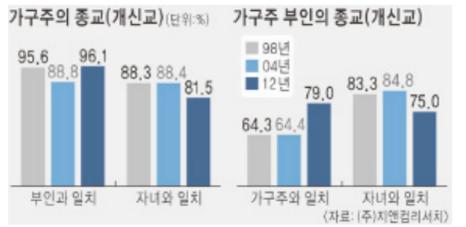
다. 순례길에 포함된 이 지역 기독교 유적지는 총 30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영광군 염산교회와 아월교회, 여수시 애양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염산교회와 아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각각 77명, 65명이 순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순교지다. 애양원은 손양원(1902-1950) 목사가 한센인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장소다. 이 밖에 한국교회 첫 여성 순교

자인 문준경(1891-1950) 전도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순교기념관, 문 전도사가 개척한 입자진리교회 등도 코스에 포함됐다. 순례길 코스는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맛집’을 탐방하고 일반 관광지도 방문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코스를 소개한 최석호 한국국제경영연구원 소장은 “전남 순례길이 인기를 끌면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홍 도 관광과장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선조들의 역사의식과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종교 일치 경향 ‘부창부수’ 남편 종교 따르는 아내 비율 높아

남편의 종교가 아내의 종교보다 가정구성원의 종교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2012년 11월 개신교인 1000명(19세 이상)과 목회자 500명을 상

대로 대면 면접 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개신교인인 경우, 아내도 개신교인일 가능성은 96.1%, 자녀는 81.5%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가 개신교인인 경우, 남편이 개신교인일



가능성은 79.0%, 자녀는 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폭쇄 풀려 대법원, 국민일보 보도 승소 확정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2014년 4-5월 ‘시한부종말론 추창...20-40대 여성이 타깃’ 기사와 ‘하나님의교회, 세상 끝난다면 서 건물 신축공사’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 집단’ 등 3건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교회 실체를 폭로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총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유력 법무법 상 등의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하나님의교회가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모두 기각됐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부 반론보도는 받아들여졌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여론조성 차원에서 당사자의 반대주장을 신는 것이다. 기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하는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교회는 국민일보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400개 교회, 20만명의 신도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왔다. 이렇게 형성한 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비판할 수 있게 됐다.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20-40대 여성과 정통교회 명목이 부작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하나님의교회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지침도 공개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이비 종교규제법이라도 만들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처럼 개인의 인성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가능해 됐다.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진흥회) 측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및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교회 관련 비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회학교 위기 “부모 책임 크다” 장신대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진단과 대안연구’ 설문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교회학교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가정에서 기독교적 자녀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장로회신학대 박상진(기독교교육) 이만식(사회복지학) 교수의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진단과 대안연구’에 따르면 국내 교회 목사와 교육전도사, 교회학교교사 등 77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9%가 교회교육이 ‘매우 위기’에, 50.5%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교회학교가 아

예 없는 경우부터 교회학교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경우까지,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회에 속한 이들이 고루 참여했다. 교회학교의 위기 지표는 학생 증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로 대변됐다. 응답자의 50.4%는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정체됐으며 36.7%는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가하고 있다는 답은 12.9%에 그쳤다.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1.8%가 학생 수가 감소할 것, 31.6%가 정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는 ‘학생들이 교회생활을 지루해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일반학교와 차

별점을 두지 못해서’ ‘학업 때문’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2.1%는 교회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87.6%)은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 가정, 학교의 전반적 문제라고 인식했다. 위기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4.3%가 부모를 꼽았다. 교육담당교역자(37.3%), 담임목사(36.9%)가 뒤를 이었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많았다. 교회 가정 학교를 연결하는 기독교 생태계회복이 36.6%로 뒤를 이었다. 탈종교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모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교의 창 (58)

선교사로서 한인의 적합성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타문화권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물설고 낯선 곳을 잠시 방문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일생을 다른 타지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는 임무를 띠고 적진 깊숙한 곳에 파견된 특공대와 비슷한 이치이다. 특공대는 그 아말모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 때때로 사람이나 족속을 택하여 쓰셨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대표적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직임은 메시아가 인간 세상에 오시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때가 차매 메시아는 도래했다. 인간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렸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많은 선교사가 요구된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WCE)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13,511개의 언어 종족군이 있다. 이중 하나인 한민족은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사로서 적합한 대상인가?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한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선교사로서 한인의 일반적 요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체질적인 면이다. 일단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하게도 한인은 어떤 기후, 음식, 인종, 문화 등에도 잘 적응한다. 한반도는 사철이 뚜렷하다. 여름철은 습하며 덥고 겨울철은 춥다. 이에 한민족은 세계 어느 기후에나 잘 적응할 수 있다. 음식도 어지간한 동물과 식물을 다 요리해 먹는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을 정도로 강성이 있다. 올림픽에서 10권을 뽐내며 여러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인은 북방 시베리아에서부터 열사의 땅 중동에서 어디에서나 야생초처럼 살아가고 있다.

둘째로 기질적인 면이다. 한민족은 총명하고 근면하다. 의지가 강하고 인내력이 있다.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피 속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살

아남았던 인고의 DNA가 있다. 우리 민족은 갑보다 을의 위치에 있어왔다. 이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적절한 요소이다. 더구나 우리는 감성이 풍부하고 외국인에 친절하다. 이는 선교사가 되려는 자에게 커다란 자산이다.

셋째로 국가적인 위상이다. Koreadaily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한국은 국토면적으로는 230국가 중 110위이며 인구는 25위이다. 그러나 세계 반열에서 한국의 국력은 상당한 위치에 있다. GDP 10위, 자동차 6위, 군사력 6위, 조선기술 1위, 인터넷 기술 1위, 휴대폰 1위, 반도체 1위, 교육 열 1위, 종합국력 9위로 책정되어

선교사로서 한인의 한계적 요소

첫째는 단일성이다. 한반도에서 성장한 한인은 단일국가, 단일언어, 단일민족, 단일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이에 단일성에 익숙한 한인선교사는 초문화적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일문화권에서 자랐기에 독선적일 때가 많다. 때로는 편협성을 보이거나 흑백논리로 판단하기 쉽다.

둘째는 조급성이다. 이것은 몰량주의로 귀착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서 부름 받는 것은 축복이다. 한인은 선교사로 쓰임 받기 위해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강점을 극대화하면 약점은 저절로 극소화된다.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대국으로서 한류를 무시할 수 없다. 보라. 세계 방방 곳곳에 한국산 TV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선교를 향한 한인의 역할에 길을 트는 것과 같다.

선교사로서 한인의 영적 요소

개인적으로 한인 크리스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도전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영적대결에 능하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순발력이 빠르다. 주님을 위한 길이면 계산 없이 몸을 던진다. 나아가 한인교회는 선교적 영성이 있다. 주님을 위해 헌신을 목말라 하고 있다.

한국과 해외에 약 6만 여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이중 선교를 교회의 존재목적으로 하는 데는 약 1%정도이다. 이밖에 30% 정도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한인교회들이 Missional Church로서 변화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것이다. 비록 한인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한인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자는 영웅적으로 대접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선교전반에 양을 치는 목자형보다 프로젝트형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셋째는 협력성이다. 타문화권 선교사역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세상의 전쟁도 그러할진대 영적 전쟁에서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국선교의 탁월한 전략인 조동진 박사는 한국선교가 넘어야 할 큰 산을 팀워크라고 했다. 이 팀워크로서 사역을 전개하지 않는 한 한인선교는 현지나라에서 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선교사역으로서 한인공동체에 시급한 요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한인선교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이다. 전쟁에는 전체를 지휘하는 전략본부가 있어야 한다. 전체를 총괄하며 리드할 본부가 없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기 쉽다. 그나마도 한국에 KWMA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실제 힘이 없다. 교단과 파송기관들이 제 소견에 좋을 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한인 선교현장은 그나마도 한국 선교의 편중문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서 오리무중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인 세계선교

전략연구소가 필요하다. 발명왕 에디슨은 99% 노력보다 1% 영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삼국지의 용감한 무장들은 제갈공명의 지략 위에서 빛을 발했다. 지략이 없는 힘은 허공을 치게 된다. 한인 세계선교는 아직도 힘을 의존하는 돌진형이다. 제도와 시스템보다 불과 인적관계에 의존하는 선교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인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제는 선교사 선발과 훈련은 물론이고 현장의 사역 등 모든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R&D(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맺음 말

선교사는 주님의 지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나그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한민족을 예비하셨다. 비록 우리 가운데는 이런 저런 약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며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때 약점들은 하나씩 최소화될 것이다.

아무튼 한민족은 선교사로서 부름받기에 천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본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다. 이제 우리 한인크리스천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열방선교를 향해 모두가 일어서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제사로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민족통일의 문도 열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킹덤이 더 빨리 축진될 것이다.

“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

jrson007@hanmail.net



필리핀

semmjoa교회와 센터

semmjoa교회와 센터는 지난 두 달의 방학을 끝내고 지난 13일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방학의 시작은 무더위의 끝을 알리고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매일 오후 여지없이 내리는 시원한 비를 맞습니다. 아직은 비만 내리지만 언제 태풍과 함께 내리는 비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비가 깨끗한 하늘을 만들고 시원한 바람도 일으켜 주어서 아직도 덥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견딜만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방학동안 킨더바이블 스킵과 함께 초등학생들의 투토리얼 클래스가 계속 되었습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은 유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멘토링스쿨을 통해서 오는 시대에 필리핀의 영웅이 되는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수요기도회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2-5일 개학하기 전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하이스쿨의 언니 오빠들이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어 섬기므로 또 다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교복들을 나누어주므로 학생들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저희 사역지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락스 마을에 전도초소를 마련하고 어린이 주일학교와 어른반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한 지주의 땅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언제라도 주인이 원하면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집을 짓고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은 물론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 20일-7월9일까지 있는 본부의 교육을 위해서 6월 18일 출국하여 7월 11일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예배당과 센터 건축을 위해 이제 설계도면을 그리고 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At buhat sa hindi mauubos na kayamanan ng Diyos, Ibigay niya ang lahat ng inyong kailangan sa pamamagitan ni Cristo Jesus”(빌4:19).

선교 이야기 - 락스마을에 시작한 교회

저희 교회에 나오는 가족 중 8형제를 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30대 중반의 아빠와 엄마입니다. 큰애가 13살이고 이제 막내는 셋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일정한 직업이 없기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



어 먹고 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집은 전에 렌트해서 살았으나 그 렌트비조차도 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쫓겨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교회건축을 위해 구입한 땅에 지어놓은 임시창고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식구들로 인해 주민들의 눈치가 심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되어 고민하게 되었는데 저희 스템의 고향에 락스 마을에 가면 땅은 무료로 쓸 수 있다 해서 그곳에 저희가 집을 지어주었는데 위의 사진이 그들의 집입니다. 10명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이곳에 공사를 하면서 400세대의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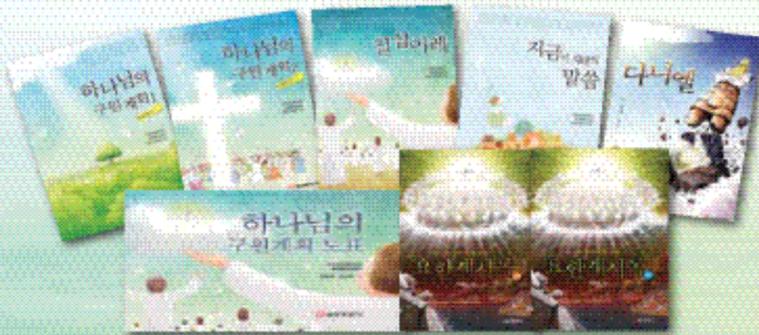
(14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목사: 라홍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3)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6)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마지막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마지막 질문 중에서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instruction/teaching)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즉 가르치는 자, 교육하는 자,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질문 중에서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instruction/teaching)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즉 가르치는 자, 교육하는 자,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기초들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교수의 주제인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집중해서 살펴보는 일은, 사실 어찌된 이치 애초에 다루어야 하는 부분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적, 이론적 기초들이 잘 세워진다고 해도, 그러한 기초들을 실제로 교육의 과정에서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인

어 있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울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신앙과 영성은 교수의 내용을 더욱 설득력 있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교사의 덕목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랑, 열정, 긍휼, 관심, 등 그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든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그러하셨듯이, 교사는 자신의 양떼를 향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지식만 집어넣어주는 교수는 교회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교육은 현재 학생들의 삶에 격한 변화(initial conversion/initial conscious re-commitment)에서부터 일상적 깨달음(life-long conversion/growth)까지 “선한 영향”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

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세련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물의 이치와 세상의 관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로써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경향이 늘어 갈수록 점점 더 그 기초들이 탄탄해 질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사란 교수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피교육자의 상황과 기질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활용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교사들은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큰

양질의 교사 확보가 관건...바람직한 교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진실한 마음, 해박한 성경지식과 능숙한 교수기술 필요

니다. 교사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충분한 수의 양질의 교사 확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더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교사는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어떻게 양질의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교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며, 그 대답을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교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질의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십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이니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영성/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돈독하게 다져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사람이어야만 양질의 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modeling)의 방법으로 교수를 하게 되

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및 무리들과 나누셨던 존재와 존재의 만남 말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없이 위의 교육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사의 마음이 없이는 학생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고로 어떠한 삶의 영향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그런 척하려 해도,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마음을 두는지 아닌지 아주 잘 알아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눈빛도 가고, 손길도 가고, 실천도 따르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양질의 교사는 성경에 대해 해박하고, 기본적인 신학적 토대가 있으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약을 능동하게 이용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한 지식을 드러내셨으며, 당시 스스로의 삶으로써 바람직한 세계관을 제시하셨습니다. 양질의 교사들은 이를 닮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물론 일반 성도들이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처럼 체계적이고 세밀한 성경 지식과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삶으로 살

강점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 자료들과 현대사회의 미디어 및 스마트 교육 기기 및 자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예민함과 언어적 능동함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질의 교사들이 현재 우리 교회들에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체계적인 목회를 하는 인제 풀이 넓고 다양한 대형 교회들에서도 위에서 묘사한 양질의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 뿐더러,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의 모습인 소형 교회들의 경우, 단 한 명의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만 보입니다. 작은 교회들의 경우, 한 분의 목회자가 교사 한 명 외에 다음세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이 다반사이지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오늘의 이야기에서처럼 “양질의 교사”의 면면들을 살펴보는 일 자체가 나의 삶의 상황과 현실과는 상관없는 먼 세계의 이야기, 그저 말로만 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 또는 현실성 지향을 가장한 또 다른 이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일하시는 주님(마14:1-12)찬133장

주님은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 의인을 통해 일하십니까(1-4). 의를 증거하다 순교당한 세례요한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는 목베임으로 죽었으나 그가 의의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예수님과 동일시 할 정도로, 죽었으나 산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까(1-2). 아벨의 억울한 순교 후

대 교회에 산 증거가 된 것처럼 요한이 증거한 의의 교회 안에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까(5-12).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나타낸 것처럼 악인들도 심판의 날에 벌을 받는데 쓰여집니다. 요한은 선을 증거하는 도구였으나 해로운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분의 신실한 인도를 따라갑시다.

화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마14:13-21)찬382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긍휼로 일하셨습니다(13-14). 주님께 나아오는 큰 무리의 영적 고통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바로 기적의 동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둘째, 제자들로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16).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선언은 제자들로 주만 믿는 무조건적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일

은 주님이 하시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감사를 통한 기적이었습니다(19). 오병이어는 보잘 것 없는 것이데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하실 때 5000여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축사란 믿음의 표현인 감사기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인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춥시다.

수 예수님의 능력(마14:22-33)찬381장

능력의 주님은 교회의 초석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왜 나타내셨습니까? 첫째,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났습니다(27-28).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신 것도 능력인데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그로 물 위를 걷게 하신 일은 단지 “오라”는 말 한마디로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은 구원과 다스리시는데 효력을 가집니다. 둘째,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30-31). 능력을 나타내는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말을 믿고 갔을 때 물 위를 걸 수 있었으나 의심이 물려올 때 물에 빠져 갔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승패를 좌우합니다. 셋째,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심에 그 목적이었습니다(33). 그 능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알 때 그 놀라운 강력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 완전한 치료자(마14:34-36)찬456장

주님의 능력은 모든 일에 완전한 치료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런 완전한 치료를 하셨습니까? 첫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자이십니다(35). 게네사렛 지역에 사는 모든 병자를 데려와 모두가 치료됨은 그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것의 치료자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둘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까닭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님과 의의 교제는 영생의 움직임이며 하나님을 알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친히 찾아가 치료하신 것이나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 치료받은 것은 모두 믿음의 표현입니다. 참 믿음은 완전한 치료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이 또 살아갑시다.

금 성경적 윤리(마15:1-8)찬328장

구원받은 이후의 삶 곧, 신자의 윤리생활은 어떻게 바로 되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3).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부모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할 때 바로 되어집니다. 모든 윤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사람관계에도 온전해야 합니다(4-5).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외식이 위함입니다(8-9).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간과의 도리를 무시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고 인간의 전통을 세우려는 인본주의 곧,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기 탐욕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주의 윤리를 경계하십시오.

토 정결케 하시는 분, 예수(마14:13-20)찬102장

외식주의자들은 참과 거짓, 정결과 불결을 바로 아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해 극단적 이기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맞선 주님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모든 것을 더럽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19).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곧 영혼, 자아의 생각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죄는 온 몸을 더럽게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며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정결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케 합니다. 주님만이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에게 돌아와 그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원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양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7: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개별)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이연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 주일4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개별)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명욱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9:00(개별)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개별)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안암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양곡교회 담임목사: 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개별) 수요일예배: 오후 9:0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장위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개별) 수요일예배: 오후 9:00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석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황성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뉴욕 오리건주립대학 연구결과 토대 보도

“66세 은퇴 경우 사망위험 11% 낮아져”

미국 오리건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66세에 은퇴할 경우 65세나 그전보다 사망 위험이 11%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년퇴직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30년 안에 68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에서 이런 연구 결과는 은퇴자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Waiting until 66 to retire linked with longer life).

논문의 주 저자 천카이우는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실시된 이 분야의 연구 대부분은 은퇴를 늦추는데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영향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미

그전에 은퇴하는 것보다 사망 위험이 11% 낮았다. 또 건강이 나쁜 은퇴자의 경우 66세까지 하면 그전에 은퇴하는 것보다 사망 위험이 9% 낮았다. 연구팀은 직업과 교육,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도 감안했

일해서 얻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수명에 큰 영향 미쳐 일과 사망 시기 연관성 정확한 이해엔 더 많은 연구 필요



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은퇴시기를 더 자유롭게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 데이터가 우리 연구에 이상적인 자료가 됐다.” 연구팀은 미국 성인 1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연령, 노화 상태를 조사한 미시간대학의 ‘건강·은퇴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들은 그중 1992-2010년 은퇴한 약 3000명의 데이터를 추렸다. 은퇴하는 이유가 건강인 경우도 많아 그런 사람은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팀은 그 요인을 고려해 연구 대상자들을 건강한 그룹과 건강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다.

학술지 ‘역학·공공건강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건강한 은퇴자 234명과 건강이 나쁜 은퇴자 262명이 사망했다. 건강한 은퇴자의 경우 66세까지 일하면 65세 또는

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로버트 스토스키 오리건주립대학 교수는 “학력, 재력,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더 유리하지만 모든 요인을 감안해도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의 연구 결과는 활동적인 사람의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궁극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일과 사망 시기 사이의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토스키 교수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일과 수명의 연관성이 확실히 보여주긴 하지만 은퇴자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과 건강,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이 밝혀지려면 아직 멀었다.”

저는 미주 한국대학생교회(KCCC USA)에서 사역하는 이기송 목사입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16년 2월에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영희 목사님을 뵈고, 많은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영희 목사님을 뵈기 전에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Journey with Jesus” 책을 먼저 읽지 않고, 다른 책들을 읽어서 그저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쓰신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재소자들의 글을 모아 재소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정도

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는 큰 기업체에서 잘 나가는 중역이었고, 어머니는 RN 간호사입니다. 가정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였지만, 부모의 기대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가진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J 학생을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무단한 노력과 관심을 때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아이를 옥죄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깊은 골이 생겼고, 부모님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밤샘을 하며 컴퓨터 게임을 했고, 잠을 못 잤기 때

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쓰고 다니고, 술과 마약으로 계속 지내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이영희 목사님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꼭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J 청년은 그 책을 3일 만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왔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J 청년은 그 책을 읽고 평평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고, 예수님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 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카운티 교도소(County Jail)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시니어 체펠린으로 계시는 로버트 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도소 안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7층에 있는 재소자들은 일반 죄수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소매가 다 없는 자루처럼 된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었는데, 교도관(officer)들이 주목해서 관찰하고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투고칼럼

이기송 목사 (KCCC USA 사역)



교도소 선교 왜 필요한가?

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희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수년간 제가 사역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한 영적인 인사이트(Insight)가 많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LA에서 덴버로 온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고, 하루 종일 저희 팀들을 섬기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저녁 늦게까지 내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며, “Journey with Jesus”의 책을 제가 접하기 이전에 책 저자의 생각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책에 나오지 않은 상황 설명까지 저에게 해주시면서 그 책에 호기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LA로 돌아와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놓을 수가 없었고, 책속에서 비춰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내가 겪었던 일들과 흡사했고, 왜 내가 사역에서 그런 실수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과 확신이 너무 강하게 전달이 되었고,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책에 너무 매료가 되었고, 2년 정도 저의 케어그룹(Care group)에 있는 J라는 청년에게 이 책을 권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J 청년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님은 불자이시고, 어머니

문에 학교에도 가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마약으로 하루 하루를 의지하며 사는 처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이유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많았는데, 특히 아버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폭풍으로 변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돌아오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J 청년은 언제나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특히 어른들에게 너무나 잘 하는 청년이었는데, 집에서는 밤샘을 해서 게임을 하고, 우울하면 마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저녁 늦은 시간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면서 자살 충동의 문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냥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저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한두 달 정도를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과 관심과 격려를 받았지만, 그때 뿐이었고, 우울증과 마약으로 계속 생활을 했고, 대학교도 3군데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공부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는 입학하지 않았고, 그냥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조금 벌어

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계시는 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이전에 함께 했던 성경공부의 내용이나, 목사님이 해주었던 영적인 대화들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충고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너무나 잔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이 책을 통하여 영적인 이해와 그 깊이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도 마약의 유혹이 있어서 100% 다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J 청년은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힘든 상황이고, 일에 지쳐 있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봐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길을 “Journey with Jesus” 책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J 청년의 고백처럼 삶의 어둠은 구렁텅이에 빠져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교도소에 잘 전달되어지고, 교도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옥을 내 짐처럼 들락날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일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긋지긋한 감옥의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영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그것에 마음이 딱 걸려들어 서 울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울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발생하는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곳 7층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각기 다른 공간에 쭈그려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게 되었고, “영적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도소 문서선교가 꼭 필요하고, 또 함께 그런 영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교도소 재소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두 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피 값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재소자들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eesong.lee@kcccla.com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장과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지애를,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 아젠넷(뉴욕, 미국)
- 유엔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 크리스찬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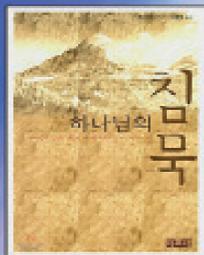
추천도서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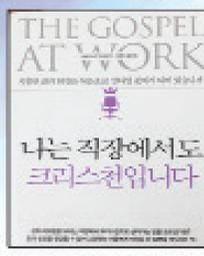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김관성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배신트래거·그레갠트 생명의말씀사